

# 忠州 靑龍寺 刊行의 「禪林寶訓」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eonrimbohun* Published by Cheongryongsa in Chungju

朴文烈 (Park, Moon-Year)\*

## ◁ 목 차 ▷

- |                      |                   |
|----------------------|-------------------|
| 1. 緒言                | 3.1 忠州 靑龍寺版의 刊行   |
| 2. 「禪林寶訓」의 撰集과 刊行    | 3.2 忠州 靑龍寺版의 刊行人物 |
| 2.1 「禪林寶訓」의 撰集과 收錄範圍 | 4. 結 論            |
| 2.2 「禪林寶訓」의 刊行       | <참고문헌>            |
| 3. 忠州 靑龍寺 刊行의 「禪林寶訓」 |                   |

## < 초 록 >

본 研究는 「禪林寶訓」의 撰集과 刊行을 바탕으로 高麗 우왕 4년(1378)에 忠州 靑龍寺에서 刊行된 「禪林寶訓」의 刊行과 關聯人物 등에 關하여 考察한 것으로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禪林寶訓」은 禪法을 닦는 學人들의 龜鑑이 될 만한 先德祖師들의 嘉言善行을 撰集한 것이며, 宗杲禪師와 士珪禪師의 初集本에 淨善禪師가 50餘篇을 蒐輯·補完하여 約 300篇으로 重集한 뒤 上下 2卷으로 編次한 것이다.

(2) 그러나 실제로 「禪林寶訓」의 卷上에는 17禪師 142篇과 卷下에는 17禪師 136篇 등 總計 34禪師 278篇의 法語가 수록되어 있으며, 中朝에서 宋朝 淳熙 9년(1182)에 初刊되고 元朝 至元 31년(1294)에 重刊된 뒤 宋版은 日本으로 傳來되고 元版은 高麗로 傳來되었던 듯하다.

(3)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은 高麗 우왕 4년(1378)에 우리나라의 初刊된 版本으로 行齊禪師가 求得한 元版을 底本으로 하여 造成된 뒤 그 木板은 靑龍寺에 留板되었으나 지금은 失傳된 상황이며, 이 版本은 朝鮮朝의 「禪林寶訓」 刊行에 크게 影響을 미친 결과 大光寺版(1525)·表訓寺版(1542)·李順才家版(1555) 등은 한결같이 忠州 靑龍寺版이 踏襲된 版本이다.

(4)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刊行을 위한 底本의 求得者인 行齊禪師는 法名이 「行齊」 또는 「行齋」이고 法號가 了庵으로 한때 忠州의 開天寺에 駐錫한 바 있으며, 牧隱 李穡과 幻庵 混脩禪師와는 가까운 사이였다.

(5)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刊行을 主導한 混脩禪師는 高麗時代 末期의 僧侶로 本貫은 豐壤이고 字는 無作·了圓 등이며 號는 幻庵이고 諡號는 普覺國師이며 塔號는 定慧圓融이다. 忠州 靑龍寺의 宴晦庵에 머물면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禪林寶訓」·「護法論」·「禪宗永嘉集」 등의 佛書刊行을 主導함으로써 當時는 물론 後代에 이르기까지 佛敎界에 큰 業績을 남긴 高僧으로 評價되고 있다.

(6)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刊行을 위한 募緣者인 尙偉禪師와 万恢禪師 및 助緣者인 高息機와 崔省緣 등의 人物에 關한 자세한 行歷은 알 수 없으나, 高息機는 奉善大夫로 典醫寺의 副正을 역임한 人物이며 崔省緣은 海州郡夫人의 爵號가 있는 人物이다.

要語: 「禪林寶訓」, 靑龍寺版, 幻庵, 混脩, 普覺國師, 行齋, 尙偉, 万恢, 高息機, 崔省緣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17년 10월 24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2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8일  
서지학연구, 제72집, 21-48,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21>)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Seonrimbohun* published by Cheongryongsa in Chungju.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Seonrimbohun* is a collection of teachings and anecdotes from ancient Buddhist monks and used by ascetics of Zen Buddhism as reference material. Jonggo and Sagyu compiled the first edition of *Seonrimbohun*, thereafter, Jeongseon revised and recompiled this original version by complementing about 50 articles. In consequence, *Seonrimbohun* consists of 2 volumes and contains about 300 articles from the great masters of Zen Buddhism.

(2) But the *Seonrimbohun* contains a total of 278 articles of sermons from 34 great monks. The first half of volume, written by 17 great monks, is comprised of 142 articles, while the second is comprised of 136 articles from the other 17 monks. The first edition of the collection was published in the 9th year of Chunxi (淳熙; 1182 C.E.) under the reign of Emperor Xiaozong of Song and was published again in the 31st year of Zhiyuan (至元; 1294 C.E.) under the reign of Kublai Khan. It is supposed that the first edition had been introduced to Japan, while the Yuan Dynasty's copy is believed to have been introduced to Goryeo.

(3) The Cheongryongsa Temple edition of *Seonrimbohun* is the first edition of *Seonrimbohun* to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in the 4th year of King U of Goryeo (1378). It was based on the Yuan Dynasty edition, which was obtained by Haengje and stored as a woodcarving in the Cheongryongsa before its loss. It became an influential reference point for all future editions of *Seonrimbohun* during the Joseon period. Examples of which include the following editions: Daekwangsa edition (1525), Pyohunsa edition and the Yi Sun-jae family edition (1555). These were essentially copies of the Cheongryongsa edition.

(4) Haengje (行齋 or 行齋), also known as Yoam, was the monk who acquired the Yuan Dynasty edition of the *Seonrimbohun* that served as the basis of the Cheongryongsa edition. He once resided in the Gaecheon Temple in Chungju and had close friendship with Mokeun Yi Saek and Hwanam Honsu.

(5) A monk from the late Goryeo period, Honsu who posthumously named Bogak Guksa, led the efforts to publish the Cheongryongsa edition of *Seonrimbohun*. His family clan was Pungyang and he was also known as Mujak, Yowon, Hwanam and Jeonghyewonyung. Honsu presided over the publication of a number of Buddhist texts while he stayed Yeonhoeam in Cheongryongsa, such as *Geumgangbanyagyongsoronchanyojohyeonrok*, *Seonrimbohun*, *Hobeobron*, and *Seonjongyeonggajip*. His achievements led to his fame during his lifetime, and he also became a monumental figure in Korean Buddhism.

(6) Details on other people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the Cheongryongsa edition, such as the fund-raiser Sangwi and Manhoe and the benefactors Gosikgi and Choeseongyeon, remain unclear. However, existing historical records point to Gosikgi having served a dual position as the Bongseondaebu and the Bujeong in the Royal Clinic (Jeoneuisa). Records also state that Choeseongyeon was the spouse of Haejugun.

Key words: *Seonrimbohun*(禪林寶訓), edition of Cheongryongsa(靑龍寺版), Hwanam(幻庵), Honsu(混脩), Bogakguksa(普覺國師), Haengje(行齋), Sangwi(尙偉), Manhoe(万恢), Gosikgi(高息機), Choeseongyeon(崔省緣)

## 1. 緒言

忠淸北道 忠州市 蘇台面 五良里 淸溪山에 所在한 忠州 靑龍寺에서는 高麗時代 末期에 普覺國師 幻庵 混脩禪師(1320-1392)의 主導下에 數種의 佛敎書籍이 刊行된 바 있다.

高麗 우왕 4년(1378)에 간행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sup>1)</sup>과 「禪林寶訓」<sup>2)</sup>을 비롯하여 우왕 5년(1379)에 간행된 「護法論」<sup>3)</sup> 및 우왕 7년(1381)에 간행된 「禪宗永嘉集」<sup>4)</sup>이 그것이다.

忠州 靑龍寺와 幻庵 混脩禪師에 관하여는 比較的 자세히 考究된 바<sup>5)</sup> 있으나, 忠州 靑龍寺 刊行의 「禪林寶訓」에 관하여는 자세히 考究된 바가 없는 듯하다.

「禪林寶訓」은 禪法을 닦는 學人들의 內省과 修行에 龜鑑이 될 수 있도록 깊은 禪定을 닦은 禪師들의 道와 德에 관한 敎訓을 모아서 撰集한 禪家의 敎訓書이며 禪法書이다.

본 研究는 中朝에서의 「禪林寶訓」의 撰集과 刊行 등을 바탕으로 高麗 우왕 4년(1378)에 간행된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刊行과 關聯人物 등에 관하여 考察함으로써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概括을 理解하고 照明하는 序說로 삼고자 한다.

## 2. 「禪林寶訓」의 撰集과 刊行

「禪林寶訓」은 일찍이 南宋朝의 臨濟宗 楊岐派의 大慧 宗杲禪師<sup>6)</sup>가 竹庵 士珪禪師<sup>7)</sup>와 함께

- 
- 1) 鳩摩羅什 譯, 宗密 撰, 慧定 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禪王 4(1378)].
  - 2) 宗杲·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禪王 4(1378)].
  - 3) 張商英 述, 「護法論」,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禪王 5(1379)].
  - 4) 玄覺 撰, 魏靜 述, 行靖 註, 「禪宗永嘉集」,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禪王 7(1381)].
  - 5) ① 忠州産業大學校博物館 編, 「忠州 靑龍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忠州]: 忠州産業大學校博物館, 1996.  
 ② 忠州工業專門大學工業博物館 編, 「靑龍寺址 地表調査 報告書」. 中原郡: 忠州工業專門大學工業博物館, 1990.  
 ③ 鄭永鎬, “中原 靑龍寺址의 調査: 普覺國師 定慧圓融塔과 塔碑 石燈을 중심하여,” 「金成樺博士 華甲紀念論叢」 (서울: 歷史研究會, 1968), 449-472.  
 ④ 鄭明鎬, “靑龍寺 普覺國師塔碑와 石燈,” 「美術史學研究」 第5卷 第12號(1964), 20-21.  
 ⑤ 강호선, “高麗末 幻庵混修의 活動과 그 意味,” 「禪學」 第43號(2016. 4), 5-34.  
 ⑥ 黃仁奎, “幻庵 混修의 生涯와 佛敎史의 位置,” 「慶州史學」 第18輯(1999), 101-131.
  - 6) 大慧宗杲(1089-1163): 俗姓은 奚氏이고 字는 曇晦이며, 號는 妙喜·雲門 등이고 諡號는 ‘普覺禪師’이다. 중국 南宋朝의 禪僧으로 南岳의 15世 法孫이며 臨濟宗 楊岐派의 第5代 傳人이다. 默照禪을 비판하고 看話禪을 제창하여 禪宗佛敎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南宋朝 초기에 金朝와의 主戰論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高麗의 牧牛子 知訥(1158-1210)은 그의 「大慧語錄」을 통하여 看話禪을 받아들였다. 저술로는 그의 語錄을 정리한 「大慧普覺禪師語錄」과 「大慧普覺禪師普說」 등이 있으며, 「大慧普覺禪師宗門武庫」·「大慧普覺禪師書」·「大慧普覺禪師法語」·「大慧杲禪師語」·「大慧集鈔」·「禪林寶訓」 등도 전해지고 있다.
  - 7) 竹庵士珪(1082-1146): 佛眼 淸遠禪師의 法統을 이었으며 南岳의 15世 法孫이다. 號는 竹庵이고 溫州 龍翔寺에 駐錫하였다. 江西의 雲居山 雲門寺에 있을 때 禪林의 道德이 쇠퇴하는 것을 慨歎하면서 여러 관련 자료를 섭렵하여 修禪學人들의 內省과 修行에 龜鑑될 만한 것을 가려 大慧 宗杲禪師와 함께 「禪林寶訓」을 初集하였다.

雲居山 雲門寺址에 土窟을 짓고 20餘年 동안起居하면서 頌古 100餘篇을 撰述할 때에 禪法을 닦는 學人들의 內省과 修行에 龜鑑이 될 수 있도록 禪門의 先德祖師들이 행한 嘉言善行을 初集한 것이었으나, 初集의 當時에 刊行을 통한 流布는 없었던 듯하다.

## 2.1 「禪林寶訓」의 撰集과 收錄範圍

### 2.1.1 「禪林寶訓」의 撰集

「禪林寶訓」의 撰集에 관한 대체적인 상황은 東吳(蘇州)의 沙門 淨善禪師(?-?)의 「禪林寶訓」, 初刊本の <序文>에 잘 나타나고 있다.

「(禪林)寶訓」은 옛적에 妙喜[大慧 宗杲禪師]와 竹庵[土珪禪師]께서 江西의 [雲居山] 雲門[寺]에서 토굴을 짓고 修道하실 때에 함께 撰集한 것이다. 나[淨善]는 淳熙年間(1173-1189)에 雲居[山]에서 노닐다가 [岳山] 祖安老禪師로부터 本書를 얻게 되었는데, 세월이 오래된 탓에 좀이 슬어 卷頭와 卷尾가 완전하지 못한 점을 애석하게 여겨왔다. 그 뒤로 <語錄>이나 <傳記> 중에서 보이는 대로 10餘年 동안 集積한 끝에 가깝스로 50餘篇이 [補集]되었다. 그리하여 楊歧派<sup>8)</sup>와 黃龍派<sup>9)</sup>에서부터 아래로는 佛照[拙庵]禪師와 簡堂[行機]禪師에 이르기까지 여러 老禪師들께서 남긴 語錄을 節要하고 수집하여 [約] 300편으로 分類·編次하였으나 集積된 순서대로 편집된 것일 뿐 時代順으로 편집된 것은 아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衲子들로 하여금 權勢와 利益을 추구하거나 남과 나를 구별하는 마음[人我見]을 깎아내고 道德과 仁義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며, 그 文體는 여유롭고 平易하여 詭辯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文套가 없어서 실로 入道를 돕는 원대한 法語들이라 할 만하다. 또한 장차 經板에 새겨 널리 傳布하자면 반드시 한 번 보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道伴이 있을 것인 바, 그렇게만 된다면 내 비록 언덕이나 골짜기에서 늙어 죽더라도 뜻[志]과 바람[願]이 具足될 것이리라!  
東吳의 沙門 淨善은 쓰다.<sup>10)</sup>

淨善禪師의 「禪林寶訓」 <序文>을 통하여 볼 때, 大慧 宗杲禪師와 竹庵 土珪禪師에 의하여 初集된 「禪林寶訓」은 그 뒤 淳熙年間(1174-1189)에 東吳의 沙門 淨善禪師가 雲居山을 遊覽하다가 老僧 祖安禪師<sup>11)</sup>로부터 「(禪林)寶訓」을 얻었으나, 별레가 먹고 훼손된 불완전한 상태여서 10餘年 동안 餘他の <語錄>들과 <傳記> 등을 참고하여 楊歧 方會禪師(992-1049)와 黃龍 慧南禪師(1002-1069)에서 佛照 拙庵禪師(1121-1203)와 簡堂 行機禪師(1113-1180)에 이르기까지 50餘篇

8) 楊歧派: 臨濟宗 楊歧派의 方會禪師(992-1049)를 지칭하는 것이다.

9) 黃龍派: 臨濟宗 黃龍派의 惠南禪師(1002-1069)를 지칭하는 것이다.

10) 宗杲·土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卷尾. 「東吳沙門淨善敬書」條.

“寶訓者 昔妙喜竹庵誅茅江西雲門時共集 余淳熙間 遊雲居得之老僧祖安 惜其年深蠹損首尾不完 後來或見于語錄傳記中 積之十年僅五十餘篇 仍取楊歧黃龍下至佛照簡堂諸老遺語 節葺類三百篇 其所得有先後 而不以古今爲詮次 大槩使學者削勢利人我趨道德仁義而已 其文理優游平易 無高誕荒逸詭異之迹 實可以助入道之遠猷也 且將刊木以廣流傳 必有同志之士 一見而心許者余 雖老死丘壑而志願足矣 東吳沙門淨善敬書。”

11) 祖安禪師(?-?): 南岳禪師의 14世인 岳山祖庵主를 지칭하며 惟信禪師로부터 得法하였다.

을 蒐輯·補完하여 約 300篇으로 重集하였음을 알 수 있다.

淨善禪師의 「禪林寶訓」 <序文>에 의하면, 「禪林寶訓」은 初集과 重集을 합쳐 約 300篇의 法語로 分類·編次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실제로 初·重集된 法語의 篇數는 278篇으로 추정된다.

또한 淨善禪師에 의하여 重集된 50篇의 法語를 제외하면 大慧 宗杲禪師와 竹庵 士珪禪師에 의하여 初集된 法語는 228篇일 것으로 짐작되나, 도합 278篇의 法語 중에서 初集된 法語와 重集된 法語를 區別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sup>12)</sup>

### 2.1.2 「禪林寶訓」의 收錄範圍

東吳의 沙門 淨善禪師에 의하여 重集된 「禪林寶訓」을 중심으로 볼 때, 「禪林寶訓」은 도합 34禪師 278篇의 法語가 上下 2卷으로 編次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元版 「禪林寶訓」의 上下卷에 收錄된 禪師別 收錄 法語의 篇數와 引用根據 및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收錄法語와 收錄面次 등을 要約·對比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1> 元版 「禪林寶訓」에 收錄된 禪師別 法語篇數와 引用根據 및 忠州 靑龍寺版과의 對比

番號	元版(1294)					靑龍寺版(1378)		備考
	卷次	禪師名	篇號	收錄法語	引用根據	篇號	面次	
001	卷上	明教契嵩	01	明教嵩和 … 不在乎己	鐔津集	01	01A-	
002	卷上	明教契嵩	02	明教曰聖 … 新之益乎	九峯集	02	01B	
003	卷上	明教契嵩	03	明教曰太 … 其可得乎	鐔津集	03	01B-	
004	卷上	明教契嵩	04	明教曰凡 … 不亦甚乎	西湖廣記	04	02A	
005	卷上	明教契嵩	05	明教曰大 … 林法擯之	西湖廣記	05	02A-	
006	卷上	圓通居訥	01	大覺璉和 … 有成器者	九峯集	01	02B	
007	卷上	圓通居訥	02	仁祖皇祐 … 通得之矣	行實	02	02B-	
008	卷上	圓通居訥	03	圓通訥和 … 顛溺之患	廬山野錄	03	03A	
009	卷上	圓通居訥	04	圓通訥曰 … 曷用規矩	野錄	04	03A-	
010	卷上	圓通居訥	05	圓通謂大 … 誠在於斯	九峯集	05	03B	
011	卷上	大覺懷璉	01	大覺璉和 … 而成之矣	九峯集	01	03B-	
012	卷上	大覺懷璉	02	大覺曰妙 … 良可嘆也	荅侍郎孫莘老書	02	04A-	
013	卷上	大覺懷璉	03	大覺曰夫 … 而歸之矣	與九仙詔(詔)和尚書	03	04B	
014	卷上	大覺懷璉	04	大覺曰前 … 尤宜謹畏	九峯集	04	05A	
015	卷上	雲居曉舜	01	雲居舜和 … 昔所存矣	九峯集	01	05A-	
016	卷上	雲居曉舜	02	大覺曰舜 … 不欲勞之	—	02	05B	
017	卷上	雲居曉舜	03	舜老夫曰 … 可以一致	二事坦然庵集	03	05B-	
018	卷上	雲居曉舜	04	舜老夫謂 … 宜其然矣	廣錄	04	06A	
019	卷上	浮山法遠	01	浮山遠和 … 能學道乎	岳侍者法語	01	06A-	
020	卷上	浮山法遠	02	遠公曰夫 … 而背之矣	雲首座書	02	06B	
021	卷上	浮山法遠	03	遠公曰住 … 福斯應矣	—	03	06B-	
022	卷上	浮山法遠	04	遠公曰住 … 之道廢矣	二事與淨因臻和尚書	04	07A	

12) “<表 1> 元版 「禪林寶訓」에 收錄된 禪師別 法語篇數와 引用根據 및 忠州 靑龍寺版과의 對比” 參看.

023	卷上	浮山法遠	05	遂公曰智 … 得不擇焉	惠力芳和尚書	05	07B
024	卷上	浮山法遠	06	遂公曰住 … 由此致耳	與青華嚴書	06	07B-
025	卷上	浮山法遠	07	遂公謂道 … 增其臭耳	西湖記聞	07	08A
026	卷上	浮山法遠	08	遂公謂演 … 孰不從化	浮山實錄	08	08A-
027	卷上	五祖法演	01	五祖演和 … 此而自勉	佛鑑荅投子書	01	08B
028	卷上	五祖法演	02	演祖曰師 … 人樹下居	廣錄	02	08B-
029	卷上	五祖法演	03	演祖曰衲 … 其過鮮矣	—	03	09A
030	卷上	五祖法演	04	演祖曰所 … 當何取法	二事坦然集	04	09A-
031	卷上	五祖法演	05	演祖曰利 … 充選者哉	圓悟書	05	09B
032	卷上	五祖法演	06	演祖曰住 … 莫之得也	與佛眼書	06	10A-
033	卷上	五祖法演	07	演祖自海 … 而流長也	耿龍學與高庵書	07	10B-
034	卷上	五祖法演	08	演祖見衲 … 必有道矣	耿龍學跋法語	08	11A
035	卷上	五祖法演	09	演祖曰古 … 映今昔矣	荅靈源書	09	11A
036	卷上	五祖法演	10	演祖謂佛 … 啻萬倍哉	與佛鑑書見蟾侍者日錄	10	11A-
037	卷上	五祖法演	11	演祖謂郭 … 成就之時	坦然庵集	11	11B-
038	卷上	五祖法演	12	功輔自當 … 可知禮也	行狀	12	12A
039	卷上	白雲守端	01	白雲謂功 … 謂癡禪矣	白雲夜話	01	12A-
040	卷上	白雲守端	02	白雲曰道 … 不足稽也	荅功輔書	02	12B
041	卷上	白雲守端	03	白雲謂無 … 得不敬乎	白雲廣錄	03	12B-
042	卷上	白雲守端	04	白雲謂演 … 不自欺也	實錄	04	13A-
043	卷上	白雲守端	05	白雲曰多 … 負人如此	白雲實錄	05	13B
044	卷上	白雲守端	06	白雲初住 … 真哲人矣	湛堂記聞	06	13B-
045	卷上	晦堂祖心	01	晦堂心和 … 豈小補哉	靈源拾遺	01	14A
046	卷上	晦堂祖心	02	晦堂曰住 … 之是非也	與草堂書	02	14A-
047	卷上	晦堂祖心	03	晦堂不赴 … 望公者哉	靈源拾遺	03	14B-
048	卷上	晦堂祖心	04	晦堂一日 … 亦曾戒之	遁庵壁記	04	15A
049	卷上	晦堂祖心	05	晦堂謂朱 … 師西來意	章江集	05	15A-
050	卷上	晦堂祖心	06	朱世英問 … 安用言之	章江集	06	15B
051	卷上	晦堂祖心	07	晦堂曰聖 … 有大小耳	荅張無盡書	07	15B-
052	卷上	晦堂祖心	08	晦堂曰久 … 可無悶矣	與祥和和尚書	08	16A
053	卷上	晦堂祖心	09	晦堂曰先 … 恭孝如此	與謝景溫書	09	16A
054	卷上	晦堂祖心	10	晦堂曰黃 … 閱經如故	已上並見靈源拾遺	10	16A-
055	卷上	黃龍慧南	01	黃龍南和 … 乃太勞乎	林間錄	01	16B
056	卷上	黃龍慧南	02	黃龍曰住 … 之元龜也	與黃蘗勝書	02	16B-
057	卷上	黃龍慧南	03	黃龍謂荊 … 足之地矣	章江集	03	17B
058	卷上	黃龍慧南	04	黃龍曰夫 … 謂之得矣	荅荊公書	04	17B
059	卷上	黃龍慧南	05	黃龍曰夫 … 道德存歟	與翠岳真書	05	17B-
060	卷上	黃龍慧南	06	黃龍謂隱 … 天下之妙	龍山廣錄	06	18A
061	卷上	黃龍慧南	07	潘延之聞 … 無言可乎	林間錄	07	18A-
062	卷上	黃龍慧南	08	黃龍室中 … 透關者也	林間錄	08	18B
063	卷上	黃龍慧南	09	黃龍曰道 … 他孰與焉	記聞	09	18B
064	卷上	黃龍慧南	10	黃龍曰古 … 道愈遠矣	遁庵壁記	10	18B-
065	卷上	黃龍慧南	11	黃龍謂英 … 見其道矣	壁記	11	19A
066	卷上	洪英邵武	01	寶峰英和 … 非其當也	廣錄	01	19A
067	卷上	洪英邵武	02	英邵武每 … 實爲苦也	壁記	02	19A-
068	卷上	洪英邵武	03	英邵武謂 … 晦堂頷之	靈源拾遺	03	19B
069	卷上	洪英邵武	04	英邵武謂 … 去霄壤矣	—	04	20A

070	卷上	洪英邵武	05	英邵武謂 … 德而稱之	靈源拾遺	05	20A-
071	卷上	眞淨克文	01	眞淨文和 … 淨謝而退	順語錄	01	20B
072	卷上	眞淨克文	02	眞淨舉廣 … 分外事耶	山堂小叅	02	20B-
073	卷上	眞淨克文	03	眞淨住歸 … 何以克當	李商老日涉記	03	21A
074	卷上	眞淨克文	04	眞淨曰末 … 隱者少矣	壁記	04	21A
075	卷上	眞淨克文	05	眞淨曰比 … 無不取法	日涉記	05	21B
076	卷上	眞淨克文	06	眞淨住建 … 服飾如此	日涉記	06	21B
077	卷上	眞淨克文	07	眞淨謂舒 … 於今日乎	日涉記	07	22A
078	卷上	眞淨克文	08	眞淨聞一 … 用此可卜	日涉記	08	22A
079	卷上	湛堂文準	01	湛堂準和 … 鮮有過者	—	01	22A-
080	卷上	湛堂文準	02	湛堂曰有 … 孰不歸焉	二事癩可贅疣集	02	22B
081	卷上	湛堂文準	03	湛堂曰道 … 不應變也	與李商老書	03	22B-
082	卷上	湛堂文準	04	湛堂曰學 … 不如無也	寶峯實錄	04	23A
083	卷上	湛堂文準	05	湛堂曰祖 … 在衆多也	實錄	05	23A-
084	卷上	湛堂文準	06	湛堂曰惟 … 不可救矣	荅魯直書	06	23B
085	卷上	湛堂文準	07	湛堂謂妙 … 予多囑也	日涉記	07	23B-
086	卷上	湛堂文準	08	湛堂謂妙 … 所上下也	寶峯記聞	08	24A
087	卷上	湛堂文準	09	湛堂曰予 … 皆良器也	日涉記	09	24B
088	卷上	湛堂文準	10	湛堂曰靈 … 非特爾也	贅疣集	10	24B
089	卷上	靈源惟清	01	靈源清和 … 事之法也	拾遺	01	25A
090	卷上	靈源惟清	02	靈源謂長 … 苟可強乎	筆帖	02	25A
091	卷上	靈源惟清	03	靈源謂黃 … 莫能濟矣	筆帖	03	25A-
092	卷上	靈源惟清	04	靈源謂佛 … 是所切禱	蟾侍者日錄	04	25B-
093	卷上	靈源惟清	05	靈源曰磨 … 易之道也	筆帖	05	06A
094	卷上	靈源惟清	06	靈源謂古 … 之基源也	筆帖	06	26A
095	卷上	靈源惟清	07	靈源謂伊 … 亂者是也	筆帖	07	26A-
096	卷上	靈源惟清	08	靈源謂伊 … 坐進斯道	筆帖	08	26B
097	卷上	靈源惟清	09	靈源曰凡 … 而致然也	日錄	09	27A
098	卷上	靈源惟清	10	靈源聞覺 … 範有之矣	章江集	10	27A
099	卷上	靈源惟清	11	靈源謂覺 … 增隱昧也	章江集	11	27A-
100	卷上	靈源惟清	12	靈源曰學 … 不同者哉	—	12	28A-
101	卷上	靈源惟清	13	靈源曰近 … 實霄壤也	與德和尚書	13	29A-
102	卷上	靈源惟清	14	文正公謂 … 以晚未聞	瑯琊別錄	14	29B-
103	卷上	靈源惟清	15	靈源曰鍾 … 公得之矣	贅疣集	15	30A
104	卷上	靈源惟清	16	靈源曰先 … 是宜祇畏	—	16	30A
105	卷上	靈源惟清	17	靈源曰東 … 中罪人矣	—	17	30B
106	卷上	靈源惟清	18	靈源道學 … 誠實在茲	記聞	18	30B-
107	卷上	靈源惟清	19	靈源謂圓 … 已也明矣	與虞察院書	19	31A-
108	卷上	圓悟克勤	01	圓悟曰人 … 言外可也	與聞主簿	01	31B
109	卷上	圓悟克勤	02	圓悟曰先 … 固霄壤矣	贅疣集	02	31B-
110	卷上	圓悟克勤	03	圓悟謂隆 … 叢林理矣	廣錄	03	32A
111	卷上	圓悟克勤	04	圓悟曰住 … 此之謂也	與佛智書	04	32A-
112	卷上	圓悟克勤	05	圓悟謂元 … 之心生矣	雙林石刻	05	32B
113	卷上	圓悟克勤	06	圓悟謂妙 … 不謂之賢	雲門庵集	06	32B-
114	卷上	圓悟克勤	07	圓悟謂佛 … 終不爲也	蟾和尚日錄	07	33A
115	卷上	佛鑑慧懃	01	佛鑑懃和 … 已而應命	蟾侍者日錄	01	33B
116	卷上	佛鑑慧懃	02	佛鑑謂詢 … 下之所爲	日錄	02	33B

117	卷上	佛鑑慧懃	03	佛鑑謂曷	… 規正來學	南華石刻	03	33B-
118	卷上	佛鑑慧懃	04	佛鑑曰先	… 爲終却之	日錄	04	34A
119	卷上	佛鑑慧懃	05	佛鑑曰先	… 此寂寥耳	日錄	05	34B
120	卷上	佛鑑慧懃	06	佛鑑曰先	… 可語道也	日錄	06	34B
121	卷上	佛鑑慧懃	07	佛鑑曰爲	… 有所闕焉	與秀紫芝書	07	34B-
122	卷上	佛鑑慧懃	08	佛鑑謂龍	… 持不振矣	—	08	35A-
123	卷上	佛鑑慧懃	09	佛鑑曰凡	… 而不信矣	山堂小參	09	35B
124	卷上	佛鑑慧懃	10	佛鑑曰佛	… 罕有倫比	與耿龍學書	10	35B
125	卷上	佛眼清遠	01	佛眼遠和	… 掩於後矣	與真牧書	01	34B-
126	卷上	佛眼清遠	02	佛眼曰人	… 其道德矣	與耿龍學書	02	36A
127	卷上	佛眼清遠	03	佛眼曰學	… 千較萬也	龍間記聞	03	36A-
128	卷上	佛眼清遠	04	佛眼謂高	… 以建立也	東湖集	04	36B-
129	卷上	佛眼清遠	05	佛眼謂高	… 不少異也	真牧集	05	37A
130	卷上	高菴善悟	01	高庵悟和	… 遂求掛搭	雲居實錄	01	37A-
131	卷上	高菴善悟	02	高庵曰學	… 地之間矣	真牧集	02	37B
132	卷上	高菴善悟	03	高庵曰道	… 人地位耳	與耿龍學書	03	37B
133	卷上	高菴善悟	04	高庵聞成	… 塊古人乎	真牧集	04	37B-
134	卷上	高菴善悟	05	高庵曰住	… 詎可得耶	龍昌集	05	38A
135	卷上	高菴善悟	06	高庵住雲	… 整嚴如此	旦庵逸事	06	38A-
136	卷上	高菴善悟	07	高庵住雲	… 感人如此	山堂小參	07	38B-
137	卷上	高菴善悟	08	高庵退雲	… 于華頂峯	真牧集	08	39A
138	卷上	高菴善悟	09	高庵曰衲	… 之所由也	與李都運書	09	39A-
139	卷上	高菴善悟	10	高庵曰教	… 宜其然矣	與死心書	10	39B-
140	卷上	高菴善悟	11	高庵曰先	… 有煩惱也	記聞	11	40A
141	卷上	高菴善悟	12	高庵表裏	… 愧於心耳	—	12	40A-
142	卷上	高菴善悟	13	高庵住雲	… 子所不及	記聞	13	40B
143	卷下	雪堂道行	01	雪堂行和	… 日遷薦福	東湖集范延齡事出皇朝類苑	01	01A-
144	卷下	雪堂道行	02	雪堂曰金	… 而利他也	與王十朋書	02	01B
145	卷下	雪堂道行	03	雪堂曰予	… 亂人意耳	東湖集	03	01B
146	卷下	雪堂道行	04	雪堂謂晦	… 事失準矣	廣錄	04	01B-
147	卷下	雪堂道行	05	雪堂曰高	… 家之志矣	廣錄	05	02A
148	卷下	雪堂道行	06	雪堂謂且	… 自檢責也	廣錄	06	02B
149	卷下	雪堂道行	07	應庵華和	… 子固重之	旦庵逸事	07	02B-
150	卷下	雪堂道行	08	雪堂曰學	… 志使然也	廣錄	08	03A
151	卷下	雪堂道行	09	雪堂曰高	… 大碗之稱	逸事	09	03A-
152	卷下	雪堂道行	10	雪堂曰學	… 去倍萬矣	與竹庵書	10	03B-
153	卷下	雪堂道行	11	雪堂曰予	… 興歸江西	聽首座記聞	11	04A
154	卷下	雪堂道行	12	雪堂曰靈	… 厚之人也	記聞	12	04A-
155	卷下	雪堂道行	13	雪堂曰萬	… 中間氣也	逸事	13	04B-
156	卷下	雪堂道行	14	雪堂生富	… 爲終却之	行實	14	05A
157	卷下	雪堂道行	15	雪堂仁慈	… 匹似間耳	行實	15	05A-
158	卷下	雪堂道行	16	雪堂曰死	… 做好人耳	聽首座記聞	16	05B
159	卷下	黃龍死心	01	死心新和	… 垂範後乎	與靈源書	01	05B-
160	卷下	黃龍死心	02	死心謂陳	… 是爲得矣	廣錄	02	06A
161	卷下	黃龍死心	03	死心曰節	… 不能爲也	廣錄	03	06A
162	卷下	黃龍死心	04	死心謂湛	… 瀆法門也	實錄	04	06B
163	卷下	黃龍死心	05	死心謂草	… 孰相從焉	黃龍實錄	05	06B

164	卷下	黃龍死心	06	死心曰求 … 能漑濟矣	因與韓子蒼書	06	06B-
165	卷下	黃龍死心	07	死心曰晦 … 汝何有焉	一本見林間錄	07	07A
166	卷下	黃龍死心	08	死心住翠 … 人故如此	西山記聞	08	07A-
167	卷下	黃龍死心	09	死心謂草 … 從而化之	實錄	09	07B
168	卷下	草堂善清	01	草堂清和 … 不可救也	與韓子蒼書	01	07B-
169	卷下	草堂善清	02	草堂曰住 … 終不可及	與山堂書	02	08A-
170	卷下	草堂善清	03	草堂曰學 … 尤宜祇畏	與一書記書	03	08B
171	卷下	草堂善清	04	草堂謂如 … 不來慕乎	踈山石刻	04	08B-
172	卷下	草堂善清	05	草堂謂空 … 而不達哉	廣錄	05	09A
173	卷下	草堂善清	06	草堂曰住 … 行之可也	踈山實錄	06	09B
174	卷下	草堂善清	07	草堂謂山 … 不能移矣	清泉記聞	07	09B
175	卷下	山堂道震	01	山堂震和 … 山之野人	清泉才庵主記聞	01	09B
176	卷下	山堂道震	02	山堂曰蛇 … 言盡之矣	與周居士書	02	10A
177	卷下	山堂道震	03	山堂曰御 … 生驕怨矣	與張尙書書	03	10A-
178	卷下	山堂道震	04	山堂曰佛 … 稱爲美也	與趙超然書	04	10B
179	卷下	山堂道震	05	山堂同韓 … 有處斷矣	眞牧集	05	10B-
180	卷下	山堂道震	06	山堂退百 … 謂賢達矣	記聞	06	11A
181	卷下	山堂道震	07	山堂謂野 … 自而入矣	幻庵集	07	11A-
182	卷下	山堂道震	08	山堂曰李 … 喜之力也	日涉記	08	11B
183	卷下	妙喜宗杲	01	妙喜杲和 … 助茶毗禮	可庵集	01	11B-
184	卷下	妙喜宗杲	02	妙喜曰佛 … 弑知事者	可庵集	02	12A
185	卷下	妙喜宗杲	03	妙喜曰祖 … 狡猾如此	可庵集	03	12A-
186	卷下	妙喜宗杲	04	妙喜曰愛 … 上之士也	智林集	04	12B
187	卷下	妙喜宗杲	05	妙喜曰古 … 成大海也	與寶和尙書	05	12B-
188	卷下	妙喜宗杲	06	妙喜曰諸 … 又何須舉	與竹庵書	06	13A-
189	卷下	妙喜宗杲	07	妙喜謂超 … 之盛衰矣	可庵集	07	13B
190	卷下	妙喜宗杲	08	妙喜曰節 … 愧古人乎	-	08	13B
191	卷下	妙喜宗杲	09	妙喜曰古 … 不亦難乎	與山堂書	09	13B-
192	卷下	妙喜宗杲	10	妙喜曰陽 … 而易失也	薌林書	10	14A-
193	卷下	妙喜宗杲	11	妙喜曰古 … 不可救也	與韓子蒼書	11	14B
194	卷下	妙喜宗杲	12	妙喜曰昔 … 可不懼乎	石刻	12	14B-
195	卷下	妙喜宗杲	13	張侍郎子 … 亦差勝矣	可庵集	13	15A-
196	卷下	妙喜宗杲	14	妙喜謂子 … 之龜鑑也	可庵記聞	14	15B-
197	卷下	妙喜宗杲	15	子韶同妙 … 之語爲當	記聞	15	16A
198	卷下	妙喜宗杲	16	子韶問妙 … 萬庵休去	已上並見可庵集	16	16A-
199	卷下	萬菴道顏	01	萬庵顏和 … 相繼而去	廬山智林集	01	16B-
200	卷下	萬菴道顏	02	萬庵曰先 … 復議論矣	智林集	02	17A-
201	卷下	萬菴道顏	03	音首座謂 … 叢林安矣	-	03	17B
202	卷下	萬菴道顏	04	音首座曰 … 況其他乎	與妙喜書	04	17B-
203	卷下	萬菴道顏	05	音首座謂 … 德山可逮	智林集	05	18A
204	卷下	萬菴道顏	06	萬庵顏和 … 吾無辭焉	智林集	06	18B
205	卷下	萬菴道顏	07	萬庵曰古 … 生滅心也	-	07	19A
206	卷下	萬菴道顏	08	萬庵曰夫 … 宜深思之	-	08	19A-
207	卷下	萬菴道顏	09	萬庵曰比 … 取笑識者	-	09	19B
208	卷下	萬菴道顏	10	萬庵曰古 … 者當思之	-	10	19B-
209	卷下	萬菴道顏	11	萬庵曰少 … 言外可矣	-	11	20A-
210	卷下	萬菴道顏	12	萬庵曰叢 … 然遠之矣	與草堂書	12	20B-

211	卷下	萬菴道顏	13	萬庵曰草 … 行下効也	清泉集	13	21A-
212	卷下	萬菴道顏	14	萬庵曰比 … 成者多矣	已上並見智林集	14	21B
213	卷下	萬菴道顏	15	萬庵節儉 … 事食饗耶	眞牧集	15	21B-
214	卷下	萬菴道顏	16	萬庵天性 … 論爲得也	記聞	16	22A
215	卷下	萬菴道顏	17	萬庵謂辯 … 入佛界也	法語	17	22A
216	卷下	昭覺大辯	01	辯首座出 … 覽之有愧	月窟集	01	22A-
217	卷下	昭覺大辯	02	辯公謂混 … 得不危乎	月窟集	02	22B
218	卷下	昭覺大辯	03	辯公曰所 … 吾何苟乎	月窟集	03	22B-
219	卷下	昭覺大辯	04	辯公曰佛 … 強遂休去	月窟集	04	23A
220	卷下	佛智端裕	01	佛智謂水 … 見其廢矣	實錄	01	23A-
221	卷下	佛智端裕	02	佛智曰駿 … 治妄想乎	與鄭居士法語	02	23B-
222	卷下	水菴端一	01	水庵一和 … 可不鑑哉	雙林實錄	01	23A
223	卷下	水菴端一	02	水庵曰昔 … 行脚之志	與月堂書	02	24A-
224	卷下	水菴端一	03	水庵曰月 … 鬻而已矣	法語	03	24B-
225	卷下	水菴端一	04	水庵謂侍 … 吾道東矣	西湖記聞	04	25A
226	卷下	水菴端一	05	水庵曰古 … 我爲敷揚	西湖記聞	05	25A-
227	卷下	水菴端一	06	投子清和 … 於藍者也	見畫像	06	25B
228	卷下	水菴端一	07	水庵曰佛 … 林之盛乎	與梅山潤書	07	26A
229	卷下	水菴端一	08	水庵曰動 … 故此切囑	見投子書	08	26A-
230	卷下	水菴端一	09	水庵少個 … 別衆告終	行實	09	26B-
231	卷下	月堂道昌	01	月堂昌和 … 莫能革矣	與舜和尚書	01	27A-
232	卷下	月堂道昌	02	月堂住淨 … 固不爲也	北山記聞	02	27B-
233	卷下	月堂道昌	03	月堂曰黃 … 必成大器	北山記聞	03	28A
234	卷下	月堂道昌	04	月堂曰黃 … 非苟然也	一本見黃龍石刻	04	28A-
235	卷下	月堂道昌	05	月堂曰建 … 鑑之嗣也	一本見廬山岳府惠太師記聞	05	28B-
236	卷下	心聞曇賁	01	心聞曰衲 … 而後已矣	語錄	01	29B-
237	卷下	心聞曇賁	02	心聞曰古 … 況其他乎	與竹庵書	02	30A
238	卷下	心聞曇賁	03	心聞賁和 … 可畏者矣	與張子韶書	03	29A-
239	卷下	拙菴佛照	01	拙庵佛照 … 聞于天下	記聞	01	30B-
240	卷下	拙菴佛照光	02	拙庵謂處 … 孰能與焉	廣錄	02	31A
241	卷下	拙菴佛照光	03	拙庵曰野 … 叢林主也	幻庵集	03	31A
242	卷下	拙菴佛照光	04	拙庵曰率 … 事紊亂矣	畫監寺書	04	31B
243	卷下	拙菴佛照光	05	拙庵曰佛 … 佛眼之嗣	-	05	31B-
244	卷下	拙菴佛照光	06	拙庵曰大 … 切宜思之	與興化普庵書	06	32A
245	卷下	拙菴佛照光	07	拙庵曰地 … 得不危乎	與洪老書	07	32A
246	卷下	拙菴佛照光	08	拙庵謂野 … 紫岳之言	幻庵記聞	08	32B
247	卷下	拙菴佛照光	09	拙庵曰野 … 莫之逆也	幻庵集	09	32B
248	卷下	拙菴佛照光	10	拙庵曰末 … 變不窮矣	與觀老書	10	32B-
249	卷下	拙菴佛照光	11	拙庵謂尤 … 失者乃爾	幻庵集	11	33A
250	卷下	拙菴佛照光	12	侍郎尤公 … 別求佛法	見靈隱石刻	12	33A-
251	卷下	拙菴佛照光	13	侍郎尤公 … 之利濟乎	然侍者記聞	13	33B-
252	卷下	密菴咸傑	01	密庵傑和 … 又何足怪	與施司諫書	01	34A-
253	卷下	密菴咸傑	02	密庵謂悟 … 作佛事也	與笑庵書	02	34B
254	卷下	密菴咸傑	03	密庵曰應 … 不能安靜	見岳和尚書	03	34B-
255	卷下	密菴咸傑	04	密庵曰住 … 物所惑矣	慧侍者記聞	04	35A
256	卷下	密菴咸傑	05	密庵曰衲 … 誠可疾也	與普慈書	05	35A
257	卷下	密菴咸傑	06	密庵謂水 … 林下人也	與水庵書	06	35A-

258	卷下	自得慧輝	01	自得暉和 … 不可立矣	見簡堂書	01	35B
259	卷下	自得慧輝	02	自得曰大 … 林之興乎	與尤侍郎書	02	35B-
260	卷下	自得慧輝	03	自得曰良 … 然不同矣	與或庵書	03	36A
261	卷下	或菴師體	01	或庵體和 … 卽宵遁去	—	01	36B
262	卷下	或菴師體	02	乾道初睛 … 充第一座	天台野錄	02	36B
263	卷下	或菴師體	03	或庵乾道 … 老壽庵也	虎丘記聞	03	37A
264	卷下	或菴師體	04	或庵入院 … 歸者如市	語錄異此	04	37A
265	卷下	或菴師體	05	或庵旣領 … 堂笑而已	記聞	01	37B
266	卷下	或菴師體	06	或庵謂侍 … 可學道矣	見曾公書	02	37B
267	卷下	或菴師體	07	或庵曰道 … 叢林廢矣	見簡堂書	03	37B-
268	卷下	或菴師體	08	或庵曰夫 … 林有主也	與圓極書	04	38A
269	卷下	或菴師體	09	或庵遷焦 … 筆判虛空	行狀	05	38A-
270	卷下	瞎堂慧遠	01	瞎堂遠和 … 未之有也	與顏侍郎書	01	38B
271	卷下	瞎堂慧遠	02	瞎堂謂或 … 也範頷之	虎丘記聞	02	39A
272	卷下	簡堂行機	01	簡堂機和 … 因茲大振	懶庵集	01	39A-
273	卷下	簡堂行機	02	簡堂曰古 … 之大分也	—	02	39B-
274	卷下	簡堂行機	03	簡堂曰學 … 于後世哉	與李侍郎二書	03	40A-
275	卷下	簡堂行機	04	簡堂淳熙 … 豈有心哉	景星石刻	04	40B-
276	卷下	簡堂行機	05	給事吳公 … 逮師遠矣	高侍者記聞	05	42A-
277	卷下	簡堂行機	06	簡堂曰夫 … 而好異也	與吳給事書	06	42B-
278	卷下	簡堂行機	07	簡堂清明 … 爲之涕下	—	07	43A
279	卷尾	重刊跋	[01]	是帙刊行 … 妙機校證	—	01	43B
280	卷尾	初刊跋	[01]	二絕敬跋 … 寅重陽日	—	01	44A
281	卷尾	初刊序	[01]	寶訓者昔 … 淨善敬書	—	01	45A
282	卷尾	刊行跋	[01]	右寶訓者 … 于宴晦菴	—	01	45B-
283	卷尾	刊行秩	[01]	募緣尙偉 … 靑龍禪寺	—	01	46B

計 上下 34禪師 278篇 278篇 21篇略 257篇錄 278篇 86板

이상을 통하여 볼 때, 「禪林寶訓」卷上에는 明教契嵩(5)·圓通居訥(5)·大覺懷璉(4)·雲居曉舜(4)·浮山法遠(8)·五祖法演(12)·白雲守端(6)·晦堂祖心(10)·黃龍慧南(11)·洪英邵武(5)·眞淨克文(8)·湛堂文準(10)·靈源惟清(19)·圓悟克勤(7)·佛鑑慧懃(10)·佛眼清遠(5)·高菴善悟(13) 등 17禪師 142篇의 法語가 수록되어 있으며, 「禪林寶訓」卷下에는 雪堂道行(16)·黃龍死心(9)·草堂善清(7)·山堂道震(8)·妙喜宗杲(16)·萬菴道顏(17)·昭覺大辯(4)·佛智端裕(2)·水菴端一(9)·月堂道昌(5)·心聞曇贲(3)·拙菴佛照(13)·密菴咸傑(6)·自得慧輝(3)·或菴師體(9)·瞎堂慧遠(2)·簡堂行機(7) 등 17禪師 136篇의 法語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禪林寶訓」의 상하 2권에는 34禪師 278篇의 法語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禪林寶訓」에 수록된 278篇의 法語 중에서 257篇의 法語의 末尾에는 引用根據가 수록되어 있으며, 收錄된 引用根據의 대부분은 略式의 名稱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일한 引用根據가 연속될 경우에는 各篇마다 기록된 경우도 있으며, 先篇에서는 기록이 생략(21)되고 末篇에만 기록된 경우도 있다. 수록된 引用根據 중에도 ‘二事 某’(4), ‘已上並見 某’(3), ‘一本見 某’(3), ‘出 某’(1),

‘因 某’(1), ‘某 異此’(1) 등으로 기록된 것은 인용의 正確性을 기하기 위한 記述法으로 짐작된다.

또한 元版과 忠州 靑龍寺版의 『禪林寶訓』에는 7處에 小字의 註文이 나타나고 있다. ‘求其行(而恐)遺其才’는 本文의 內容이 小字化되어 註文처럼 처리된 것이며, 나머지 註文들은 ‘山陽(楚州也)’·‘當塗(太平州也)’ 등의 地名, ‘先聖(大滄秀雙嶺化感鍊面三人也)’·‘獨居士(廣錄見獨居士者即雪堂父也)’·‘林公(叔達)’ 등의 人名, ‘歐(於口切捶也)’의 音義에 관련된 註文들이다.

## 2.2 『禪林寶訓』의 刊行

大慧 宗杲禪師와 竹庵 士珪禪師에 의하여 初集된 『禪林寶訓』은 그 刊行의 記錄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에 刊行되지 못하고 筆寫本으로만 유통되었던 듯하다.

淨善禪師에 의하여 重集된 『禪林寶訓』이 宋朝에 初刊되었음은 初刊本 『禪林寶訓』에 收錄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의 『禪林寶訓』 <序文>에 잘 나타나 있으나, <序文>을 撰述한 年紀가 記錄되어 있지 않아 그 刊行時期가 언제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禪林寶訓集』이 宋朝에 初刊된 情況은 永中禪師<sup>13)</sup>가 元朝에 重刊한 『禪林寶訓集』의 <跋文>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본 『禪林寶訓』 全帙이 刊行된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木板은 松源 [崇岳]和尚의 塔院에 留板되어 왔는데 어느 날 저녁에 [塔]院의 火災로 木板도 함께 燒燬되어 識者들이 憫惻하게 여겨왔다. 이에 衆緣을 모아 다시금 새로이 鋟梓하여 그 傳來를 오래토록 하여 見聞하는 大士들이 諸大老들과 더불어 千年의 위로까지 周旋할 수 있는 所願을 이루게 되었다.

甲午(1294)年 中秋에 吳門의 比丘 永中은 삼가 쓰다. 木板은 長蘆禪寺에 留板하고 印行하다. 安慶府의 太平興國禪寺住持 嗣祖比丘 妙機는 校讎하고 證明하다.<sup>14)</sup>

永中禪師의 重刊本 <跋文>에는 『禪林寶訓』의 初刊은 이미 오래 되었을 뿐 아니라 그 木板이 松源 崇岳和尚<sup>15)</sup>의 塔院<sup>16)</sup>에 留板되어 오다가 塔院의 火災로 인하여 모두 燒燬되었다는 사실까지도 기록되어 있으나, 永中禪師의 重刊本 <跋文>에도 宋版本의 初刊의 時期가 언제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初刊의 時期가 언제였는지는 初刊本 『禪林寶訓』의 卷尾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13) 永中禪師(?-?): 永中禪師의 자세한 行歷은 알 수 없으나 中峯 明本禪師의 門弟로 『緇門警訓』·『高峰和尚禪要』 등의 刊行을 주도한 人物이다.

14) 宗杲·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卷尾. ‘刊行秩’條.  
“是帙刊行久矣 板留松源和尚塔院 一夕院災板亦隨燬 識者憫焉 令募衆緣 重新鋟梓 以壽其傳 使見聞之士 如與諸大老 周旋於千載之上 甚適所願矣 甲午中秋 吳門比丘永中謹識 板留長蘆禪寺印行 安慶府太平興國禪寺住持嗣祖比丘妙機校證.”

15) 松源和尚: 松源 崇岳和尚(1132-1202)을 지칭하며 處州 龍泉의 출신으로 俗姓은 吳氏이고 密庵 咸傑禪師의 法嗣이다. 일찍이 杭州 靈隱寺의 首座를 거쳐 慶元 3년(1197)에 靈隱寺의 주지가 되었으며, 禪師의 塔銘은 太中大夫寶謨閣待制로 致仕한 南宋의 有名詩人인 放翁 陸游(1125-1210)에 의하여 撰述되었다.

16) 塔院: 東晉 咸和元年(326)에 창건된 浙江省 杭州의 靈隱寺를 지칭하는 것이다.

錫山 尤袤<sup>17)</sup>의 <天池寺 淨善 老禪師의 「寶訓集」<sup>18)</sup> 末尾에 2首의 七言絶句로 恭敬히 跋하다(二絶 敬跋天池善老寶訓集後)>라는 <跋文>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二絶敬跋天池善老寶訓集後>

是是와 非非를 가려서 本宗을 바로 잡고서도 밝은 窓과 깨끗한 机杖으로 많이도 아울었어라 篇章과 글자마다 오로지 간절한 規勸들이라니 모름지기 宗門을 믿음에 公께까지 이르렀도다!	是是非非正本宗 明窓淨几幾牢籠 篇篇字字惟規勸 須信宗門有至公.
魔鬼는 강하고 法은 약하다 한들 어찌 외로우랴 그대께선 은근히 遠代를 도모하여 著作하였거늘 微言만으로도 世間의 模範이 될 수 있을 것이나 後來들이 기꺼이 실행할지 與否는 알 수 없도다!	魔强法弱道何孤 荷子慙慙作遠圖 雖有微言爲世範 未知來者肯行無

壬寅年(1182) 重陽日에 쓰다.<sup>19)</sup>

遂初居士 尤袤가 初刊의 「禪林寶訓」의 跋文인 <二絶敬跋天池善老寶訓集後>를 撰述한 시기가 宋朝 淳熙 9년(1182, 壬寅, 명종 12) 重陽日인 점을 미루어 「禪林寶訓」의 宋版本은 淳熙 9년(1182) 9월 9일 이후에 淨善禪師의 主導下에 初刊되고 그 木板은 松源 崇岳和尚의 塔院에 留板되다가 塔院의 火災로 모두 燒燬되고 말았으며, 그 영향으로 오늘날 傳存하는 宋版本도 전혀 없는 듯하다.

松源 崇岳和尚의 塔院의 火災로 宋版의 木板이 燒燬되자 이를 민망하게 여기던 識者들이 衆緣을 모아 永中禪師가 朝의 至元 31년(1294, 갑오, 충렬왕 20)에 다시금 새로이 木板으로 간행한 版本이 元版本인 것이다. 元版은 鋟梓된 뒤 그 木板을 眞州의 長蘆禪寺<sup>20)</sup>에 留板하고 印行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들에 관하여는 安徽省 安慶府의 太平興國禪寺의 住持인 妙機禪師가 校讎·證明하고 있다.

17) 尤袤(1127-1194): 중국 南宋朝 常州 無錫의 出身으로 詩人이자 大臣이다. 字는 延之·季長 등이고 號는 遂初居士·樂溪·木石老逸民 등이며, 諡號는 文簡이다. 高宗 紹興 18년(1148)에 進士가 되고 泰興令·大宗正丞·禮部侍郎兼修國史·秘書丞兼國史院編修·著作郎·中書舍人·直學士·煥章閣侍制·給事中·侍讀·吏部侍郎·江西轉運使·禮部尙書 등 다양한 職責을 역임하였다. 朝廷에서의 言辭는 과감하였으며 아부하지 않고 原則을 지켰을 뿐 아니라, 詩文에 뛰어난 楊萬里·范成大·陸游 등과 함께 '南宋四大家'로 稱頌되었다. 孫綽의 <遂初賦>의 뜻을 빌려 九龍山 아래에 遂初堂을 짓고 3萬餘卷의 藏書를 소장한 유명한 藏書家이기도 하며, 그의 藏書目錄인 「遂初堂書目」 1권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著名한 目錄學 著作의 하나이다. 저서로는 「遂初小稿」·「內外制」·「樂溪集」 등이 있었으나 모두 失傳되었으며, 詩도 대부분은 없어지고 淸朝에 이르러 후손인 尤侗이 그의 遺詩를 모아 康熙年間에 「梁溪遺稿」 1권을 간행하였으나 전체 著作의 극히 일부밖에 불과하다.

18) 「寶訓集」: 錫山 尤袤는 「禪林寶訓」을 「[禪林]寶訓集」으로 기록하고 있다.

19) 宗杲·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卷尾. 「二絶敬跋天池善老寶訓集後(錫山尤袤)條. “是是非非正本宗 明窓淨几幾牢籠 篇篇字字惟規勸 須信宗門有至公 魔强法弱道何孤 荷子慙慙作遠圖 雖有微言爲世範 未知來者肯行無 壬寅重陽日.”

20) 長蘆禪寺: 眞州 長蘆寺를 지칭하며 <眞州長蘆寺經藏記>에 의하면 智福이 藏經閣을 건립하고 5,048卷의 佛經을 安置하였는데, 이를 위해 모금한 金錢이 3千萬兩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로부터 中朝의 『禪林寶訓』의 版種은 宋版과 元版의 兩大系列로 나누어져 宋版本은 日本으로 전래되어 五山版·寬永本·頭書本·冠註本 등의 여러 가지 宋版系列의 版本이 刊行된 바<sup>21)</sup> 있으며, 元版本은 高麗로 전래되어 우왕 4년(1378)에 忠州의 靑龍寺에서 刊行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후로도 『禪林寶訓』은 여러 系統의 版本이 유통되었으나, 이들 版本들은 한결같이 宋·元版을 중심으로 慧洪覺範·歸雲如本·圓極彥岑·東山慧空·浙翁如琰·慈受懷深·靈芝元照·懶菴道樞 등 諸禪師의 法語들이 增添된 版本에 지나지 않았다.

### 3. 忠州 靑龍寺 刊行의 『禪林寶訓』

中朝에서 간행된 宋版本 『禪林寶訓』의 高麗에 傳來된 與否는 알 수 없으며, 元版本도 언제 高麗로 傳來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高麗에서는 우왕 4년(1378, 宣光 8)에 元版 『禪林寶訓』을 底本으로 하여 忠州의 禪刹인 靑龍寺에서 靑龍寺版 『禪林寶訓』이 刊行된 바 있다.

#### 3.1 忠州 靑龍寺版의 刊行

고려 우왕 4년(1378)에 忠州의 靑龍寺에서 『禪林寶訓』이 刊行된 사실은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卷尾에 수록된 幻庵 混脩禪師의 <跋文>과 <刊行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禪林)寶訓』은 宋朝의 高僧인 妙喜 竹菴禪師께서 여러 末學들이 대체로 名聲만을 追求할 뿐 道德을 修行하지 않음을 걱정하여 尊宿들의 高談과 叢林의 遺訓 중에서 大衆을 警戒할 만한 法語들을 함께 모아 2卷으로 나누고 그 題名을 『禪林寶訓』이라 한 것이다. 兩街의 了庵 行齊老禪師께서 그 중의 1부를 求得하여 [보고는] 일찍이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라 감탄하며 門人 尙偉禪師에게 板刻하여 널리 流布할 것을 付囑한 것이니, 幻庵은 그 末尾에 몇 마디 語句로 題하는 바이다.

宣光 8(1378, 무오, 우왕 4)年 2月에 宴晦菴에서 쓰다.<sup>22)</sup>

尙偉禪師와 万恢禪師가 募緣하고 優婆塞 高息機와 優婆夷 崔省緣이 助緣하여 忠州의 靑龍禪寺에 留板하다.<sup>23)</sup>

21) 椎名宏雄, “『禪林寶訓』 諸版の系統,” 『印度學佛敎學研究』 第44卷 第1號(1988. 12), 82-87.

22) 宗杲·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卷尾. ‘跋文’條.

“右寶訓者 宋之高僧妙喜竹菴 愍諸末學 多求聲名 不脩道德 共集尊宿之高談 叢林之遺訓 可以警衆者 析爲二卷 目之曰禪林寶訓 兩街了庵行齊公得之一部 歎未曾有 囑門人尙偉禪者 募緣彫板 廣令流布 幻菴爲題數語于末 宣光八年戊午二月書于宴晦菴. 幻庵(木記). 沙門/無作(木記).”

23) 宗杲, 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卷尾. ‘刊行秩’條.

“募緣 尙偉 万恢 助緣 優婆塞高息機 優婆夷崔省緣 留板忠州靑龍禪寺.”



<寫眞 1>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書影 (忠州博物館 所藏本)

幻庵 混脩禪師의 <跋文>에 의하면, 中朝에서 「禪林寶訓」이 撰集된 緣機와 더불어 高麗에서는 兩街<sup>24)</sup>의 了庵 行齊禪師(1328-?)가 元版의 1部를 어렵사리 求得하여 門人인 尙偉禪師(?-?)에게 板刻과 流布를 付囑하여 忠州 靑龍寺에서 「禪林寶訓」이 刊行될 수 있었던 緣機를 기록하고 있다.

幻庵 混脩禪師의 <跋文>이 禡王 4년(1378, 선광<sup>25)</sup> 8) 2월에 宴晦菴에서 쓴 것으로 미루어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板刻도 이 무렵에 進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板刻의 底本도 宋版系列의

24) 兩街: 高麗朝에 僧官制度의 일종인 僧錄司의 조직으로 兩街 또는 左街僧錄·右街僧錄·左右兩街都僧統 등의 명칭은 모두 僧錄司 또는 그 일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僧錄司에는 좌우의 兩街가 있고 兩街에는 각각의 都僧錄이 있었으며, 그 아래에 副僧錄과 僧正이 있었다. 都僧錄은 左家 또는 右家의 僧侶와 教團의 戒律을 관리하고 모든 佛教行事를 주관하였다. 兩街의 僧錄 위에는 都僧統이 있어서 전체 僧錄司를 대표하고 兩街를 총괄하여 關掌하였다. 이밖에도 釋敎都僧統·五敎都僧統 등의 명칭도 보인다. 그러나 朝鮮朝에 들어 抑佛政策이 강화되면서 세종 6년(1424)에 僧錄司를 폐지함으로써 僧官職도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25) 宣光: 明朝 太祖에 의하여 北으로 쫓겨난 北元 昭宗의 年號이다. 高麗에서는 종래에 元朝의 年號를 사용하다가 공민왕 18년(1369)에 明朝의 강압으로 元朝 順帝의 至正年號(1341-1367)를 폐지하고 明朝 太祖의 洪武年號(1368-1398)를 사용하였으며, 우왕 2년(1376)에 北元이 우왕을 고려왕으로 冊封하자 우왕 3년(1377, 宣光 7, 洪武 10) 2월부터 北元의 宣光年號(1371-1378)를 施行하다가 이듬해(1378) 9월에 다시 洪武年號로 還元하였다.

「禪林寶訓」이 아니라 元版系列의 「禪林寶訓」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刊行秩>에 의하면,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板刻은 尙偉禪師(?-?)와 万恢禪師(?-?)의 募緣과 優婆塞<sup>26)</sup> 高息機(?-?)와 優婆夷<sup>27)</sup> 崔省緣(?-?)의 助緣으로 造成되었으며, 그 造成된 木板은 忠州의 靑龍寺에 留板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로 忠州 靑龍寺에서 造成된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木板에 관하여 記述된 文獻이 없어 그 行方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忠州 靑龍寺가 어떤 연유로 廢寺될 때에 함께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禪林寶訓」은 高麗 우왕 4년(1378)에 忠州 靑龍寺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刊行된 뒤, 朝鮮朝에 들어서도 數次에 걸쳐 간행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版本들이 大光寺版<sup>28)</sup>과 表訓寺版<sup>29)</sup> 및 李順才家版<sup>30)</sup> 등의 「禪林寶訓」이다.

大光寺版(1525)·表訓寺版(1542)·李順才家版(1555)의 「禪林寶訓」은 表題·著編者·校證者·版種·卷冊數·卷頭題·版心(頭)題·卷尾題·本文(註文)行字數·板口·引用根據·紙質·裝訂 등은 모두 忠州 靑龍寺版과 一致하나, 刊行地·刊行處·刊行年·邊欄·半郭·界線·魚尾·版心記錄·刻手名·施主者名(欄外)·規格·初刊序·初刊跋·重刊跋·刊行跋·刊行秩·木記·木板數·藏板處 등의 기록은 各 版本마다 특징이 있는 만큼 忠州 靑龍寺版과 일치되지 않고 있어 朝鮮時代에 刊行된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의 「禪林寶訓」은 各 版本마다 特徵을 달리하는 일부의 項目을 제외하면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을 踏襲한 版本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高麗 우왕 4년(1378)에 忠州 靑龍寺에서 元版을 底本으로 하여 「禪林寶訓」이 刊行된 뒤로 朝鮮時代에 들어서도 大光寺版·表訓寺版·李順才家版 등이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을 典型으로 삼아 刊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3.2 忠州 靑龍寺版의 刊行人物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刊行과 관련된 人物은 <跋文>과 <刊行秩> 등을 통하여 볼 때, 底本の 求得者인 了庵 行齊禪師(1328-?)와 <跋文>의 撰述者인 幻庵 混脩禪師(1320-1392)를 비롯하여 募緣者인 尙偉禪師(?-?)와 万恢禪師(?-?) 및 助緣者인 高息機(?-?)와 崔省緣(?-?) 등으로 파악된다.

26) 優婆塞: 佛敎에서 出家하지 않고 佛弟子가 된 男子를 지칭한다.

27) 優婆夷: 佛敎에서 出家하지 않고 佛弟子가 된 女子를 지칭한다.

28) 宗杲·士珪 共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全羅道 順天地]: [母後山 大光寺], [中宗 20(1525)].

29) 宗杲·士珪 共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江原道]: [金剛山 表訓寺], [中宗 37(1542)].

30) 宗杲·士珪 共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黃海道 黃州地]: [李順才家], [明宗 10(1555)].

### 3.2.1 底本の 求得者 了庵 行齊禪師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 刊行의 底本을 求得한 了庵 行齊禪師(1328-?)와 관련된 기록은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末尾에 수록된 <跋文>에 나타나는 短文과 牧隱 李穡(1328-1396)의 「牧隱詩藁」에 수록된 <代書答開天行齋禪師寄茶走筆>의 詩篇 등에 지나지 않는다.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跋文>에는 “了庵 行齊禪師가 元版의 1部를 어렵사리 求得하여 門人인 尙偉禪師에게 板刻과 流布를 付囑하였다”<sup>31)</sup>고 기록되어 있으며, 牧隱 李穡의 「牧隱詩藁」에 수록된 <走筆로 代書하여 開天[寺]의 行齋禪師가 茶를 부쳐준 데에 답하다><sup>32)</sup>에는 “동갑 나이 라 늙을수록 친해지나니, 좋은 차는 그 맛도 진미이려네! 맑은 바람이 거드랑에서 나오나니, 곧바로 道가 높은 이를 찾아가고 싶어지네!”라며 友情을 노래하고 있다. 다만 行齊禪師의 ‘行齊’는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跋文>에는 ‘行齊’로 기록되어 있고 牧隱 李穡의 詩篇에는 ‘行齋’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대상은 모두 同一의 人物인 듯하다.

따라서 行齊禪師는 法名이 ‘行齊’ 또는 ‘行齋’이고 法號가 了庵이며, 한때 忠州의 開天寺에 駐錫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牧隱 李穡과는 同甲으로 서로 서신을 왕래만큼 가까운 사이로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이 간행되던 우왕 4년(1378)에 當年 51歲였으며, 幻庵 混脩禪師(1320-1392)와도 가까운 사이였으나 幻庵 混脩禪師보다는 9세의 年下였음을 알 수 있다.

### 3.2.2 <跋文>의 撰述者 普覺國師 幻庵 混脩禪師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跋文>을 撰述한 幻庵 混脩禪師(1320-1392)는 高麗時代 末期의 僧侶로 俗姓은 趙氏이고 本貫은 豐壤이며 龍州<sup>33)</sup>出身이다. 俗名은 趙混脩이고 字는 無作·了圓 등이며 號는 幻庵이다. 諡號는 普覺國師이며 塔號는 定慧圓融이다.

幻庵 混脩禪師는 高麗朝에 天和寺殿直을 역임한 豐壤趙氏 殿直公派의 派祖인 趙之蘭(?-?)의 6세로 高祖는 文林郎 太子詹事를 역임한 趙溫珣(?-?)이고 曾祖는 太中大夫 禮賓卿을 역임한 趙振圭(?-?)이며 祖父는 監察院掌令을 역임한 趙晶(?-?)이다.

幻庵 混脩禪師는 憲府散郎을 역임하고 충숙왕 7년(1320)에 龍州宰로 나가 任地에서 卒去한

31) 宗果·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卷尾. ‘跋文’條.

“右寶訓者 宋之高僧妙喜竹菴 愍諸末學 多求聲名 不脩道德 共集尊宿之高談 叢林之遺訓 可以警衆者 析爲二卷 目之曰禪林寶訓 兩街了庵行齊公得之一部 歎未曾有 囑門人尙偉禪者 募緣彫板 廣令流布 幻菴爲題數語于末 宣光八年戊午二月書于宴晦菴. 幻庵(木記). 沙門/無作(木記).”

32) 李穡 著, 「牧隱詩藁」. 木板本. [發行地不明]: [韓山李氏宗中], [1600年代]. 卷18. 詩. ‘代書答開天行齋禪師寄茶走筆’條.

“同甲老彌親 靈芽味自眞 清風生兩腋 直欲訪高人”

33) 龍州: 平安北道 龍川地域의 古地名이기도 하나, 현재의 慶尙北道 醴泉郡 龍宮面地域이다.

父親 趙叔鶴(?-?)과 正義大夫 戶部尙書 平章事를 역임한 淸州 慶蕃(?-?)의 딸<sup>34)</sup>인 母親과의 슬하에서 4남 중 막내로 충숙왕 7년(1320)에 父親의 任所인 龍州에서 출생하였다. 伯兄은 趙虔(?-?)이고 仲兄은 趙宗(?-?)이며 叔兄은 趙球(?-?)이다.

<表 2> 普覺國師 幻庵 混脩禪師의 家系

趙孟(豐壤始祖) … 之蘭(殿直公派祖) - 溫珣(02) - 振圭(03) - 晶(04) - ①仁鶴 · ②幼鶴 · ③信鶴 · ④叔鶴 · ⑤季鶴 · ⑥河某 · ⑦黃有謙(05) - ④⑤
④叔鶴(05) <sup>35)</sup> - ①虔(06) <sup>36)</sup> - 云伋 <sup>37)</sup> · 云价 <sup>38)</sup> · 云式 <sup>39)</sup> (07) … 无后
- ②宗(06) <sup>40)</sup> - 失名(07) - 崇祖(08) … 后裔无考
- ③球(06) <sup>41)</sup> … 無后
- ④混脩(06) <sup>42)</sup> … 無后
⑤季鶴(05) - 炎暉(06) - 思忠(07) <sup>43)</sup> - 喜(08) - 新玉(09) - 璧(10) … 后裔无考

- 34) 淸州慶氏는 高麗 高宗朝에 文科에 及第하여 正義大夫 戶部尙書平章事를 역임한 慶蕃의 딸로 慶蕃은 “慶瑠(淸州始祖) - 大升 … 蕃(淸州中祖) - 綏(02) - 斯萬(03) - 復興(04) - 補(06) …”로 系譜되어 있으며, ‘女趙叔鶴’條에는 “女趙叔鶴 豐壤人 官龍川 父監察院掌令品得”으로 기록되어 있다(慶時顯 編, 『淸州慶氏族譜』. 卷上. 서울: 淸州慶氏大同譜所, 1983. 卷上. p.169.).
- 35) 豐壤趙氏世譜所 編, 『豐壤趙氏世譜』. 서울: 豐壤趙氏世譜所, 1979. 卷1. p.2.  
“叔鶴: 憲府散郎 延祐庚申以憲府出宰龍州卒于官 配淸州慶氏 四子.”
- 36) 豐壤趙氏世譜所 編, 『豐壤趙氏世譜』. 卷1. p.4.  
“虔: 御史 三子一女.”
- 37) 豐壤趙氏世譜所 編, 『豐壤趙氏世譜』. 卷1. p.4.  
“云伋: 政堂文學 自少奇偉 不羈與世 不合麗朝 恭愍世登科 歷左諫議判典校典理判密直提學 辛禍世藝文提學佩印五州觀風四道 麗季托病不仕 入朝鮮朝尹江陵府拜政堂辭不起 卜居廣州古垣村韜晦不見 號礪棲霞翁又號夢村 有文集 所撰三韓龜鑑行于世 壽七十三 有自誌文 麗史立傳詳見世錄 配尙州金氏 父定遠功臣政堂文學得培 典醫祿孫 外祖瑞興金世九 墓在楊州峨嵋山南今失傳 舊有墓碑 正德間爲防灘僧軍所拔沈于新川水底云 无后.”
- 38) 豐壤趙氏世譜所 編, 『豐壤趙氏世譜』. 卷1. p.4.  
“云价: 府使 一云府尹 配礪山宋氏 父判司僕寺事仁蕃 府院君正嘉公瑞孫 府院君襄毅公珍曾孫 外祖諫議善山金石鏐 一女(成達生: 昌寧人 判中樞 父文肅公石塔 子副摠管勝 與子三問同被丙子禍 子參軍勝 與參判淸州韓惠后室 女殿直南平曹柔 女兵使淳昌趙崇文 與子哲山六臣殉節時同被禍 勝子承旨三問六臣之一 府使三聘三顧正郎三省 勝子三錫三鈞)”
- 39) 豐壤趙氏世譜所 編, 『豐壤趙氏世譜』. 卷1. p.4.  
“云式: 洪武辛酉爲西海道按廉使 一女.”
- 40) 豐壤趙氏世譜所 編, 『豐壤趙氏世譜』. 卷1. p.4.  
“宗: 一云琮 尙書 一子一女.”
- 41) 豐壤趙氏世譜所 編, 『豐壤趙氏世譜』. 卷1. p.2.  
“球: 宰臣 無后.”
- 42) 豐壤趙氏世譜所 編, 『豐壤趙氏世譜』. 卷1. p.2.  
“混脩: 字無作 號幻庵 師事息影菴 書法妙一世 爲李牧隱方外友 忠州青龍寺有浮屠及碑 權陽村近撰.”
- 43) 豐壤趙氏世譜所 編, 『豐壤趙氏世譜』. 卷1. p.4.  
“思忠: 奉善大夫 千牛衛領護軍 或保勝將軍 配江陵金氏 父少尹之德 議郎璜孫 僉議七紹曾孫 墓失傳 子孫於次子商議公墓右設壇豎碑以伸追遠之誠 二子一女 子孫居尙州.”

幻庵 混脩禪師의 行歷에 관한 原資料로는 陽村 權近(1352-1409)이 태조 3년(1394)에 撰述한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sup>44)</sup> 및 忠淸北道 忠州市 蘇台面 五良里 靑溪山의 靑龍寺址에 所在하는 <普覺國師定慧圓融塔碑><sup>45)</sup>의 碑文 등이 전래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그의 語錄인 「幻庵 語錄」<sup>46)</sup>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조 3년(1394)에 陽村 權近에 의하여 撰述된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를 중심으로 幻庵 混脩禪師 및 관련 人士들의 行歷을 要約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3> 普覺國師 幻庵 混脩禪師 및 關聯 人士들의 行歷

年代	朝代	月 日	年歲	內 容	備考
1320	충숙왕	07 03 13	01	· 父親 趙叔領의 任地인 龍州에서 出生하다	47)
		01 15		· 懶翁 惠勤和尚 出生하다	
1328	충숙왕	15 05 09	09	· 牧隱 李穡, 了庵 行齊禪師(未詳), 木菴 榮英禪師(未詳) 出生하다	
1331	충혜왕	01	12	· 母親의 勸誘로 大禪師 繼松禪師에게로 出家하다	48)
1341	충혜복	02	22	· 僧科의 上上科에 及第하다	49)
1347	충목왕	03	28	· 陶隱 李崇仁 出生하다	
1348	충목왕	04	29	· 名利를 버리고 金剛山으로 들어가 2년 동안 精進하다	50)
1350	충정왕	02	31	· 돌아가신 母親을 위하여 「大字妙法華經」을 書寫하여 冥福을 빌다	51)
1352	공민왕	01 11 06	33	· 陽村 權近 出生하다	

44)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發行地不明]: [發行者不明], [發行年不明].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師諱混脩 字無作 號幻菴 本姓趙氏 廣州豐壤縣人 考諱叔領 憲部散郎 妣慶氏 本靑州 皆士族也 憲部出宰龍州 以延祐庚申三月十三日 生師于治所 ..."

45) 현재 <普覺國師塔>은 國寶 제197호로 指定되어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普覺國師之碑>는 寶物 제658호로 指定되어 유지·관리되고 있다.

46) 「幻庵語錄」: 幻庵 混脩禪師의 語錄으로 「金石總覽」·「羅麗藝文志」·「韓國佛教撰述文獻目錄」 등에 著錄된 바 있다. 특히 「羅麗藝文志」에는 上下 1冊本이 開城의 中京文庫에 所藏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金鈔瑟編>, 「(新羅·百濟·高句麗)羅麗藝文志」, 서울: 弘文書館, 1964. pp.255-256.> 現傳本은 없는 듯하다.

47)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師諱混脩 字無作 號幻菴 本姓趙氏 廣州豐壤縣人 考諱叔領 憲部散郎 妣慶氏 本靑州 皆士族也 憲部出宰龍州 以延祐庚申三月十三日 生師于治所 ..."

48)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嘗一日出田 見一鹿走且止而顧視者再 欲發矢 異而顧之 有其兒追母而來 乃嘆曰 獸之念兒 與人何別 卽罷獵 不數月 病終于州 妣奉喪提孩以歸 師少嘗嬰疾 卜之曰 此兒出家 終不病 作大和尚矣 年甫逾一紀 妣謂師曰 汝生之初 汝父以憐汝故感鹿母兒 以休其獵 是汝慈仁護生之道已現於襁褓之日矣 況卜者言然 令投大禪師繼松祝髮 訓習內外典 聰慧異常 月開日益 卓然有聲 遂爲屈下第二座 ..."

49)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至正紀元辛巳 赴禪試登上上科 儒釋朋遊 日以親附 每歎身命幻化靡常 超然有脫棄名羈之想 忽聞母鄰有暴亡者 益自悲感 決意入山 辭母將行 夢見日輪直照師面 旣覺欣慶 徑往金剛山 卽八年戊子秋 師年二十有九歲也 ..."

50)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攝心不寐 脅不暫衡 功夫日進 旣二稔 ..."

51)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聞其母戀望不置 卽來覲省 寓止京山 不敢遠遊凡五六年 及母卒 倩寫大字妙法華經以資冥福 ..."

1355	공민왕 04	36	·江華 禪源寺의 息影庵 淵鑑禪師로부터 『楞嚴經』을 배워 得道하고	52)
			宰相 趙雙重 <sup>53)</sup> 의 休休庵에서 3년 동안 『楞嚴經』을 강의하다	
1358	공민왕 07	39	·忠州 靑龍寺의 서쪽에 宴晦庵을 짓고 머물다	54)
			·恭愍王이 楊州 檜巖寺에 駐錫할 것을 청하였으나 金鰲山을 거쳐	55)
			거쳐 五臺山 神聖庵에 머물다	
1360	공민왕 09	41	·當時 孤雲庵에 있던 懶翁과 자주 만나 佛道를 論한 뒤 信標를	56)
			傳受받고 門徒가 되다	
1361	공민왕 10 [秋]	42	·恭愍王의 命으로 宮中에서 法會를 열었으나 도중에 도망하여	57)
			名山과 大刹을 遍歷하다	
1369	공민왕 18	50	·白城郡人 金瓚 <sup>58)</sup> 의 願刹인 安城 瑞雲寺에서 禪會를 크게 열다	59)
1370	공민왕 19 07	51	·開城 廣明寺의 功夫選場에서 홀로 選拔되었으나 內院에 머무는	60)
			것으로 잘못 알아 몰래 圍鳳山으로 숨어들다	
1372	공민왕 21	53	·恭愍王의 命으로 南平 佛護寺에 머물다	61)
1373	공민왕 22	54	·內佛堂에 머물다가 밤에 빠져나와 平海의 西山으로 가다	62)

- 52)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謁息影鑑和尚于禪源 學楞嚴深得其髓 故宰相趙公雙重新結休休菴 迺師請演首楞要旨 辯才清發 令人悲喜 因住三年 …”
- 53) 趙孟均 編, 『白川趙氏族譜』. 定州: 松潭齋, 昭和 8(1933). 卷1. 張2. ‘雙重’條.  
“雙重: 號休休堂 奉翊大夫 門下右常侍 一云僉議中贊三典事禮園銀臺事 按陽村集 公乃至正中宰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趙之遜(白川始祖) - 良裕(02) - 先正(03) - 仲璋(04) - 玉(05) - 文冑(06) - 璈(07) - 允璵(08) - 涓(09) - 雙重(10) - 得珠(11) - 何(12) - 世卿(13) - 胖(14) - 瑞老(15) - 元壽(16) … 无后’로 系譜되어 있다.
- 54)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往忠之靑龍寺 靑龍西麓 沿溪而上 峯回境靜 有屋舊址 躬搬木石 經營無憚 旣成 扁以宴晦 盖自表其心迹也 …”
- 55)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玄陵高師行誼 請住檜岩寺不就 乃入金鰲山 又入五臺山居神聖菴 …”
- 56)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時懶翁勤和尚 亦住孤雲菴 數與相見 咨質道要 翁後以金欄袈裟·象牙拂·山形杖遺師爲信 …”
- 57)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辛丑秋 命江陵道按廉使起師赴闕 俾主登壇之戒 師於中道遯走 晦迹山水間 遍歷名山 操守益固 …”
- 58) 金演錫 編, 『江陵金氏族譜』. 明川: 金光澤方, 昭和 9(1934). 卷1. 張20. ‘瓚’條.  
“瓚: 讓郎”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金周元(江陵始祖) - 身(02) - 紫絲(03) - 東靖(04) - 英堅(05) - 堅雄(06) - 徵祐(07) - 陽(08) - 上琦(09) - 仁存(10) - 永錫(11) - 閔(12) - 革升(13) - 弁(14) - 守精(15) - 雄(16) - 七貂(17) - 瓚(18) - 之德(19, 軍器少監 或云郎將) - 女趙思忠(20, 豐壤人 父右代言炎暉)’로 系譜되어 있다.
- 59)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己酉 白城郡人金瓚 邀師以願刹瑞雲寺 師至 開僧堂葺廊廡 大張禪會 四衆聞之 造謁者衆 …”
- 60)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洪武三年庚戌秋七月 上設功夫選場 大集禪教山門衲子 命懶翁試之 上親臨觀 翁下一語 諸衲無一能對者 上不憚 將罷 師後至 具威儀立堂門階下 翁問如何是當門句 師即上階奮曰 不落左右 中中而立 問入門句 師入門曰 入已還同未入時 問門內句 曰 內外本空 中云何立 翁又以三關問曰 山河嶽邊止 奮曰 逢高卽下 遇下卽止 門水何到成渠 曰 大海潛流 到處成渠 問飯何白米做 曰 如蒸沙石 豈成嘉餐 翁乃頷之 上勅攸司制入格文 留宗門 師知上欲命住院 不告出城 隱於圍鳳山…”
- 61)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五年壬子 壓於上命 住佛護寺 …”
- 62)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1374	공민왕 23	01	55	· 다시 內院으로 들어가 恭愍王에게 佛法를 가르치고 특히 王大妃의 尊敬을 받다	63)	
	우왕 卽	09		· 禍王이 卽位하여 '廣通無碍圓妙大智普濟'의 法號가 下賜되다	64)	
1375	우왕 01		56	· 順天 松廣社(松廣寺)에 머무르다	65)	
1376	우왕 02	03	57	· 辭職書를 올리고 安城 瑞雲寺로 돌아가다	66)	
		05	15	· 懶翁 惠勤和尚 入寂하다		
1378	우왕 04		59	· 雉嶽山에서 忠州의 宴晦庵으로 돌아가다	67)	
		02	上旬	· 忠州 靑龍寺에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을 刊行하다	68)69)	
		02		· 忠州 靑龍寺에서 「禪林寶訓」을 刊行하다	70)71)	
				· 王命으로 開城 光巖寺 <sup>72)</sup> 에 住持하다		
1379	우왕 05	08	01	60	· 忠州 靑龍寺에서 「護法論」을 刊行하다	73)74)

- “... 越明年 有旨徵入內佛堂 師用夜半潛出 直往平海之西山 ...”
- 63)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勅諸道搜之不已 乃出應命甲寅正月 始入院 上屢咨法要 王大妃尤加敬重 ...”
- 64)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甲寅] ... 及九月 上賓于天 康宣君立 賜以廣通無碍圓妙大智普濟之號 ...”
- 65)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乙卯秋 移住松廣社 ...”
- 66)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丙辰三月 上書辭院 歸瑞雲寺 ...”
- 67)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戊午 自雉岳還宴晦 ...”
- 68) 鳩摩羅什 譯, 宗密 撰, 慧定 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木版本. 卷尾. ‘跋(無作)條.  
“夫金剛般若者越苦海之舟船入覺城/ 之蹊徑也五位大士賴此而因圓十方/ 諸佛由斯而果謗自六代翻譯之後箋/ 注解釋者固不可勝數也然斷疑遺執/ 壞相泯心令諸末學披迷雲而觀慧日/ 者无如此錄山僧越丙辰安居矣未受/ 人請益開演是法有信士高君息機聞/ 法歡喜願欲鏤板以廣其傳捐家資囑/ 門人万恢尙偉共令辦是事今彫刻已/ 畢携以示予隨喜贊揚書其大略云時/ 宣光八年戊午(1378)二月上旬幻菴比丘無/ 作書于宴晦菴. 幻庵(木記). 沙門/ 無作(木記).”
- 69) 鳩摩羅什 譯, 宗密 撰, 慧定 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木版本. 卷尾. ‘刊行秩’條.  
“募緣 万恢尙偉志中天密/ 辦善/ 奉善大夫典醫副正高息機/ 海州郡夫人崔氏省緣/ 同願/ 比丘尼戒完/ 承奉郎 漢陽判官趙云介/ 板鎮忠州靑龍寺.”
- 70) 宗杲·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版本. 卷尾. ‘跋文’條.  
“右寶訓者宋之高僧妙喜竹菴愍諸末學多求聲名不脩道德共集尊宿之高談叢林之遺訓可以警衆者析爲二卷目之曰禪林寶訓兩街了庵行齊公得之一部歎未曾有囑門人尙偉禪者募緣彫板廣令流布幻菴爲題數語于未宣光八年戊午二月書于宴晦菴. 幻庵(木記). 沙門/ 無作(木記).”
- 71) 宗杲·士珪 共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版本. 卷尾. ‘刊行秩’條.  
“募緣 尙偉 万恢/ 助緣 優婆塞高息機 優婆夷崔省緣/ 留板忠州靑龍禪寺.”
- 72) 光巖(岩·巖)寺: 開城의 光巖洞에 있던 사찰로 원래 雲岩寺로 불리던 始興宗 소속의 寺刹이었으나, 恭愍王朝 光巖寺를 둘러싸고 始興宗과 曹溪宗 간에 분쟁이 생기면서 雲岩寺를 昌和寺로 고쳐 曹溪宗의 寺刹로 삼고 曹溪宗의 寺刹이던 天和寺를 始興宗의 寺刹로 삼도록 하였다. 공민왕 14년(1365)에 魯國大長公主가 薨去하자 雲岩寺의 인근에 正陵을 조성하면서 正陵의 願刹로 삼고 ‘廣通普濟禪寺’로 賜額하였으며, 공민왕 18년(1369) 무렵부터 呆庵禪師가 光巖寺의 初代住持가 되어 10년간 住持를 역임하였다. 공민왕 21년(1372)부터 王命으로 光巖寺의 重修를 시작하여 中朝에서 碑石을 구해오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竣工하지 못한 채 王이 薨去하자 이 寺刹에 葬事를 지냈으며, 우왕이 즉위하자 光巖寺는 魯國大長公主와 恭愍王의 願刹로 다시 重創되어 우왕 3년(1377)에 이르러 竣工되었다. 이듬해(1378)에 세워진 <廣通普濟禪寺碑>의 碑文은 牧隱 李穡이 撰述하고 글씨는 韓偈가 書寫한 것이다.
- 73) 張商英 述, 『護法論』.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禍王 5(1379)]. 卷尾. ‘跋(李穡)’條.

1380	우왕 06	61	·王命으로 3년간 開城 光巖寺의 住持를 역임하고 晩에 原州의 白雲庵으로 隱居한 후로 住持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龍門寺·清平寺·雉嶽山 등을 遍歷하다	75)
1381	우왕 07	春 62	·忠州 靑龍寺에서 『禪宗永嘉集』을 刊行하다	76)77)
1383	우왕 09	02 64	·朝廷이 德望이 있는 釋門의 師範으로 推薦하자 不應하다	78)
		04 01	·王이 御書·印章·法服·禮幣 등을 下賜하여 國師로 冊封하고 大曹溪宗師禪教都總攝悟佛心宗興慈運悲福國利生妙化無窮都大禪師 正遍智雄尊者的 尊號를 올리며 忠州의 開天寺에 常住하도록 하다	79)
		秋	·安城 瑞雲山으로 가자 王이 鞍馬를 下賜하며 徵召하여도 不應하다	80)
			·木菴 榮英禪師 王師에 冊封되다	
1384	우왕 10	65	·海賊이 忠州를 侵犯하자 國王의 請으로 開城 光巖寺로 옮기다	81)
1385		秋 66	·50日間の 白傘蓋道場의 主盟이 되고 行幸한 國王께 禮를 다하다	82)
1386	우왕 12	67	·大妃安氏의 玄陵薦度を 위한 輔國寺의 佛頂會를 주관하다	83)

“宋丞相張天覺護法論一篇殆萬餘/ 言釋僧俊以幻菴普濟大禪師之命/ 重刊于忠之靑龍寺既訖携墨本/ 求予跋其尾予觀其辭率不可解/ 然喜聞韓歐氏韓歐氏吾所師也吾/ 實駭焉雖然五濁惡世爲善未必/ 福爲惡未必禍非佛何所歸哉嗚呼護法論宜其盛行於世也蒼龍己/ 未仲秋初吉韓山君李穡跋。”

- 74) 張商英 述, 『護法論』. 木版本. 卷尾. ‘刊行秩’條.  
“募緣納 僧俊/ 影助釋 万恢.”
- 75)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戊午] ... 忽一日 有賓及門 師卽入室 托疾不出 賓果中使 請師主光巖 師以疾辭不獲 乃起以來 僅闕三霜 請退不報 卽以宵遯 抵于原之白雲菴 自後歷徙龍門·清平·雉岳諸山 誓不復作住持 ...”
- 76) 玄覺 撰, 魏靜 述, 行靖 註, 『禪宗永嘉集』. 木版本. 卷尾. ‘跋(李邦直)’條.  
“夫大道玄虛言而非道故維摩杜/ 口於毗耶文殊嘆曰無有文字言/ 語是真入不二法門然雖如是不/ 假文言則何以明其離言說之妙/ 理是以永嘉大師初看維摩經發/ 明心地及到曹溪一宿而得正覺/ 集此大章十門以詔後之學者已/ 覺者見此文則增益言語道斷心/ 行處滅無聞無說之密旨未覺者/ 見此文則可破迷途皆覺合塵業/ 識之昏昧門門之旨其利博哉我/ 先師懶翁大和尚在世之時住檜/ 巖乙卯春出此文集授之於余曰/ 此是禪宗入道之要訣你可觀之/ 余敬受而來一覽而後還呈/ 室下思欲再覽而未獲其本今/ 先師哲弟照峯田禪人將此本來/ 請余重刊流布余乃懼懼喜喜再/ 閱斯文益感/ 先師之慧因与田禪并諸同志請/ 工鋟梓以廣其傳所冀/ 楓禁亭多歷/ 椒闌永厚德四境靜無虞百寮忠奉取/ 風雨無失時人民有餘食普及幽/ 現有同情脫生滅諸惑時蒼龍辛/ 酉春月日重大匡琅城君信菴/ 閑閑居士西原李邦直覺演謹誌。”
- 77) 玄覺 撰, 魏靜 述, 行靖 註, 『禪宗永嘉集』. 木版本. 卷尾. ‘刊行秩’條.  
“淡如 覺訥 李仁弘 刀”
- 78)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癸亥二月 朝議欲遵舊制 擇立釋門名德以爲師範 時望咸注于師 師聞謀欲隱避 門人甘露長老慶觀曰 此自安之計耳 方今國主尊崇我法 欲舉斯事 意甚盛也 願師爲法 小安無躁 師果不行 ...”
- 79)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癸亥] ... 夏四月朔甲戌 王遣相臣禹仁烈等 奉御書印章法服禮幣就所寓宴晦庵 冊爲國師大曹溪宗師禪教都總攝悟佛心宗興慈運悲福國利生妙化無窮都大禪師正遍智雄尊者 以忠之開天寺爲下山所 ...”
- 80)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癸亥] ... 其秋 往瑞雲山 王又遣正郎朴元素 獻鞍馬邀還 ...”
- 81)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明年甲子 海賊深入 寇忠州界 廟謀憲開天林壑將爲賊藪 師住于彼 其能安乎 以聞于王 遣使邀至光巖寺 既至 上言曰 老僧未辭開天 且住光巖 雖得一寺 尙違素志 況可兼乎 殿下若欲俾老僧全心以追先君冥福者 願以開天差付別人 王曰 開天是師終住資蔭之地 光巖是予請來演法之場 兼領何害 師不得謝 ...”
- 82)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乙丑秋 命設五十日白傘蓋道場 以禳天地災變 名儒韻釋多詣聽講 會未 王亦駕幸以致禮 ...”
- 83)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1387	우왕 13	68	· 星座에 異常이 생겨 國王이 招待한 壽昌宮 消災法席을 주관하여 國王의 尊敬을 받다	84)
1388	우왕 14	06 69	· 昌王이 卽位하여 忠州 開天寺로 옮겨가자 國王이 사람을 시켜 護行하도록 하다	85)
		夏	· 泰齋 柳方善 松京에서 出生하다	
1389	창왕 01	11 70	· 恭讓王이 卽位하자 表文을 올리고 雉巖山으로 들어갔으나 數 個月만에 다시 國師로 봉해지고 忠州 開天寺로 옮기다	86)
1390	공양왕 02	06 28 71	· 木菴 榮英禪師 入寂하다	
1391	공양왕 03	72	· 太祖 李成桂와 함께 大藏經을 印成하여 瑞雲寺에 奉安하고 慶會를 베풀다	87)
1392	태조 01	07 73	· 太祖의 開國을 祝賀하는 表文을 올리고 忠州 靑龍寺로 옮기다	88)
		09 18	· 門人에게 遺書를 쓰게 하고 臨終偈를 남긴 후 入寂하다	89)
		09 25	· 宴晦庵 北麓에서 茶毗하여 舍利를 收拾하자 國王이 ‘普覺’이라는 諡號와 ‘定慧圓融’이라는 塔號를 내리고 浮屠를 造成하도록 하다	90)
		12 28	· 忠州 靑龍寺의 北峯에 下棺하니 春秋 73歲에 夏臘 60歲이며 門人은 慶觀, 湛圓, 紹安, 卍雨 등이 있다	91)
			· 陶隱 李崇仁 享年 46歲로 卒去하다	
1393	태조 02	+01	· 王命으로 木菴 榮英王師의 碑가 세워지다	
1394	태조 03	02 29 +02	· 陽村 權近이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를 撰述하다	92)

“... 丙寅 大妃安氏爲導女陵請莅佛頂會于輔國寺 ...”

- 84)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王又請於壽昌宮主消災席 及還 命代言李稷件送 用表尊敬 ...”
- 85)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戊辰夏 王遜于外 幼君襲位 師乞歸開天 專使護行 ...”
- 86)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己巳之冬 恭讓君卽祚 具牋封印 送納于朝 入雉岳山 未數月 更封國師 遣使復于開天 ...”
- 87)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今主上之在潛邸 嘗與師願成大藏 辛未秋 粧校詔功置瑞雲 大設慶會 恭讓君命內臣降香 邀師爲證 ...”
- 88)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壬申秋七月 我主上革命啓統 師卽表賀 俄以老病乞解其位與寺 修牋送印 遂移錫于靑龍 侍者湛圓奉書印詣 闕 上意欲仍師事 卽還其印 湛圓來報 師蹙額曰 吾老且病 逮將不久 明主如何沮吾之願 未幾病作 旬日彌留 雖數起便 不令人扶 困不尸臥 必以支脇 ...”
- 89)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壬申] ... 至九月十有八日丙申 命作遺書 又謂門人曰 吾行在今晚 可請州官封印 至晚 坐曰 如今臘除已到 吾當逝矣 卽設偈 儼然示寂 床坐八日 貌若平時 ...”
- 90)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壬申九月] 至二十五日癸卯 門人積薪茶毗于宴晦之北麓 是夜有雨 崇朝不止 方下大 雲開天霽 若有神助 厥明拾骨 色白如雪 其頂骨尤厚且淨 門人紹安奉遺書以聞 上情惻悼 命攸司賜諡曰普覺 塔曰定慧圓融 差遣內 臣 監其厝骨 又勅工造浮屠 ...”
- 91)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 [壬申] ... 以其年後十二月甲申 窆于靑龍寺之北峯 是夜星朗 雞鳴雨作 迨累石乃歇 衆以謂異 春秋七十三 夏臘六十 ...”
- 92)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卷37. 碑銘類. ‘有明朝鮮國普覺國師碑銘(并序)’條.  
“上肇位三年春二月己亥 駕幸檜岩寺 命臣近若曰 脩國師在前朝 道行高一世 逮余莅祚之初而奄逝 余甚悼焉 今其徒磨石厝骨 又欲勒碑以示後 爾宜爲銘 臣近承命悸恐 不敢以不文辭 ... 師貌清而秀 氣淑以和 禮恭言切 人皆愛敬 持律乃堅 守道乃勤 位尊而心益謙 年高而行益勵 禪教諸典 靡不研窮 學多不師自通 誨人不倦 講解

- 1396 태조 05 05 07 +04 ·牧隱 李穡 享年 69歲로 卒去하다
- 1409 태종 09 02 14 +17 ·陽村 權近 享年 58歲로 卒去하다
- 1443 세종 25 春 +51 ·泰齋 柳方善 享年 56歲로 卒去하다

幻庵 混脩禪師는 12세인 충혜왕 원년(1331)에 母親 慶氏의 권유로 繼松禪師(?-?)계로 出家한 이래 충혜왕 복위 2년(1341)에 僧科의 上上科에 급제하고 39세인 공민왕 7년(1358)에 懶翁 惠勤和尚(1320-1376)으로부터 信標를 받았으며, 공민왕 19년(1370)에 功夫選場에서 선발되어 공민왕 23년(1374)에 國王에게 佛法를 가르치고 특히 王大妃의 尊敬을 받았다.

우왕이 즉위(1374)하자 ‘廣通無碍圓妙大智普濟’의 法號가 하사되고 우왕 9년(1383)에는 前年(1382)에 王師와 國師를 겸임하던 太古 普愚禪師의 入寂으로 인하여 御書·印章·法服·禮幣 등의 下賜와 함께 國師로 冊封<sup>93)</sup>되었으며, ‘大曹溪宗師禪教都總攝悟佛心宗興慈運悲福國利生妙化無窮都大禪師正遍智雄尊者’의 尊號가 올려졌다.

창왕이 즉위(1388)하자 忠州의 開天寺로 옮겨 머물다가 이듬해(1389) 공양왕이 즉위하자 表文을 올리고 雉嶽山으로 돌아갔으나 몇 개월 만에 다시 國師에 冊封되었으며, 공양왕 3년(1391)에는 太祖 李成桂와 함께 大藏經을 印成하여 瑞雲寺에 봉안하고 慶會를 베풀기도 하였다.

태조 원년(1392)에 忠州 靑龍寺에서 臨終偈<sup>94)</sup>를 남기고 入寂하자 ‘普覺’이라는 諡號와 ‘定慧圓融’이라는 塔號가 下賜되었다.

幻庵 混脩禪師는 國王의 徵召에도 쉽게 응하지 않고 俗世의 名利에 超然한 求道者였을 뿐만 아니라, 牧隱 李穡<sup>95)</sup>과 陶隱 李崇仁(1347-1392)<sup>96)</sup> 및 泰齋 柳方善(1388-1443)<sup>97)</sup> 등 당대의 儒學

詳明 所至第孺彌衆 入其室者多聞人頌德 不喜綴文 苟下筆則辭語精微 尤工於簡牘 識者稱之 門人等謀欲堅碑于浮圖之側 使其徒出兩撰行狀 紹安持以聞于上 以有是命 臣近竊惟 佛氏之道莫高於禪 然其言多詭怪莫測 若麻斤屎撒之類 尤可駭愕 其傳愈遠而說益誕 唯曹溪大鑑師心平行直等語 典實平易 其道益尊 故能獨高諸祖 至今學者皆宗之 今觀吾師選場答話 事理融徹 明的實 且其平日訓迪學者 必以真常 使之易入 與大鑑同軌 非若他誕幻可駭者之比 是知道本坦實 而師之所造者深矣 況師既有資稟之美 又加功力之勤 其所得必異於人 亦何疑哉 是宜爲銘 銘曰 性海妙湛 浮漚自生 起滅無迹 恒澹以清 吾師之德 展也大成 慧悟出衆 早卓有聲 感歎奮發 辭親以行 攝心著力 不擬不衡 不落左右 中道斯征 纖塵迥絕 惠日常明 窮山晦迹 一瓶一錫 答問交符 天顏載懌 萬衲趨風 一國仰德 出作師賓 在動彌宗 始夢日輪 厥靈斯赫 暨終有徵 法雨普洽 王命作碑 刻辭于石 盡未來際 皆師普覺。”

- 93) 「忠州億政寺大智國師智鑑圓明塔碑」에 의하면, 이때에 太古 普愚禪師의 弟子인 木菴 榮英禪師가 王師로 冊封되었다.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 京城: 朝鮮總督府, 大正 8(1919), 下冊. p.716.>
- 94) 成倪 著, 「慵齋叢話」, 影印本. (「大東野乘」,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8. 所收) 卷6. 「釋混脩」條. “任運騰騰度一生 病中消息更惺惺 無人識得吾歸處 窗外白雲橫翠屏.”
- 95) ① 李穡 著, 「牧隱詩藁」, 木版本. 卷4. 詩. 「寄脩上人」條. “宴晦山人今若何 身心已付爍迦羅 清風太守渾閑事 學唱曹溪一曲歌.”
- ② 李穡 著, 「牧隱詩藁」, 木版本. 卷4. 摩尼山紀行. 「送觀禪師歸清涼」條. “平生不識釋迦文 只愛高僧遠世紛 更說清涼山水好 葛巾何日訪孤雲 知師飛錫過靑龍 爲報平安宴晦翁 世故滌人須省取 扶蘇山下又秋風.”
- ③ 李穡 著, 「牧隱詩藁」, 木版本. 卷17. 詩. 「憶幻菴」條. “問辯縱橫選佛堂 一時衲子少承當 心從柏樹傳初祖 貌與蓮花似六郎 紫陌風塵今獨步 白雲丘壑昔深藏 似聞入定談圓覺 如我當咨第幾章.”
- ④ 李穡 著, 「牧隱詩藁」, 木版本. 卷31. 詩. 「絕磻倫公游靑龍回以瓠蘆盛尊榮相遣又以幻菴書來投喜甚吟成一首」條.

者들과도 폭넓게 交遊하였다.

특히 幻庵 混脩禪師는 고려시대 말기에 忠州 靑龍寺의 宴晦庵에 머물면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sup>98)</sup>·「禪林寶訓」<sup>99)</sup>·「護法論」<sup>100)</sup>·「禪宗永嘉集」<sup>101)</sup> 등 4종의 佛書刊行을 主導함으로써 當時는 물론 後代에 이르기까지 佛敎界에 큰 業績을 남긴 高僧으로 評價되고 있다.

### 3.2.3 刊行의 募緣者 尙偉禪師와 萬恢禪師 및 助緣者 優婆塞 高息機와 優婆夷 崔省緣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 刊行의 募緣者인 尙偉禪師(?-?)와 萬恢禪師(?-?) 및 助緣者인 優婆塞 高息機(?-?)와 優婆夷 崔省緣(?-?) 등에 관한 자세한 行歷은 알 수 없다.

다만 忠州 靑龍寺版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의 卷尾에 수록된 <刊行秩>에는 이들이 ‘辦善’으로 ‘奉善大夫典醫副正高息機’와 ‘海州郡夫人崔氏省緣’으로 기록<sup>102)</sup>되어 있어, 優婆塞 高息機는 奉善大夫로 典醫寺<sup>103)</sup>의 副正을 역임한 인물이며 優婆夷 崔省緣은 海州郡夫人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困臥南牕午夢餘 忽然清快眼光舒 壺中倒載季鷹菜 案上拆開靑龍書 煙樹風花節序速 雲山鹿陌音問疏 黃驪東岸有梵刹 夜話月明看釣魚。”

- ⑤ 李穡 著, 「牧隱詩藁」, 木版本. 卷33. 詩. ‘寄呈幻菴走筆’條.  
“垂老難相會 浮生不自由 可能違素約 而忍負清遊 歲月如流水 江山欲暮秋 公無斬飛錫 我亦上扁舟.”
- ⑥ 李穡 著, 「牧隱詩藁」, 木版本. 卷35. 詩. ‘岑侍者告歸開天走筆寄呈幻菴國師’條.  
“永日無人處 高樓成佛圖 忽逢岑侍者 面亦愧衰儒 賢聖雲間電 虛空海上漚 何時造方丈 相對共胡盧.”
- ⑦ 李穡 著, 「牧隱詩藁」, 木版本. 卷35. 驪興吟. ‘寄呈幻菴’條.  
“舟中新作小茅亭 坐對雲山四面靑 倘得幻翁飛錫過 百年沈醉一時醒.”
- 96) 李崇仁 著, 「陶隱先生詩集」, 木板本. [發行地不明]: [發行者不明], [發行年不明]. 卷3. 詩. ‘題幻菴卷’條.  
“大地浮漚上 多生閃電中 安身定何處 敢問幻菴翁.”
- 97) ① 柳方善 著, 「泰齋先生文集」, 石版本. [發行地不明]: 柳天植, 1965. 卷1. 詩. ‘贈明谷上人’條.  
“明谷奇男兒 性愛雲林僻 少也逃空虛 迴脫塵網窄 初參宴晦翁 高問皆辟易 出門已豁然 目前無扞格 禪心秋江澄 世念春水釋 山游登金剛 水賞過蠡石 身行遍東國 尋訪任所適 歸來臥一菴 斂却十年迹 跣跡樂幽獨 室中生虛白 相逢風調同 素談兩無斃 沒泉煮香茗 開籠劈新柏 多方慰淹留 徙倚煙霞夕 從今約同遊 秋晴更蠟屐 往來亦何有 相看數峯隔.”  
② 柳方善 著, 「泰齋先生文集」, 卷3. 詩. ‘送明谷俗離山之行’條.  
“初參宴晦即傳衣 好向靑山錫杖飛 道大戲談歸至理 心清詩語透玄機 深村紅樹明寒逕 舊隱蒼苔上半扉 近欲往尋蒙印可 自知人事古來非.”
- 98) 鳩摩羅什 譯, 宗密 撰, 慧定 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禪王 4(1378)].
- 99) 宗杲·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板本. [忠州]: [靑龍寺], [禪王 4(1378)].
- 100) 張商英 述, 「護法論」,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禪王 5(1379)].
- 101) 玄覺 撰, 魏靜 述, 行靖 註, 「禪宗永嘉集」,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禪王 7(1381)].
- 102) 鳩摩羅什 譯, 宗密 撰, 慧定 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木版本. 卷尾. ‘刊行秩’條.  
“募緣萬恢尙偉志中天密/ 辦善/ 奉善大夫典醫副正高息機/ 海州郡夫人崔氏省緣/ 同願/ 比丘尼戒完/ 承奉郎漢陽判官趙云介/ 板鎮忠州靑龍寺.”
- 103) 典醫寺: 고려시대 후기에 宮中에서 議約을 和劑하고 疾病을 治療하는 일을 맡아보던 官廳으로 官員으로는 判事(정3품) 1인, 正(종3품) 1인, 副正(종4품) 1인, 丞(종5품) 1인, 注簿(종6품) 1인, 直長(종7품) 1인, 博士(종8품) 2인, 檢藥(정9품) 2인, 助教(종9품) 2인이 있었다.

#### 4. 結論

이상에서 『禪林寶訓』의 撰集과 刊行 등을 바탕으로 高麗 우왕 4년(1378)에 간행된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刊行과 關聯人物 등에 관하여 고찰한 바 그 結論으로 다음과 같다.

(1) 初集本 『禪林寶訓』은 南宋朝의 大慧 宗杲禪師(1089-1163)와 竹庵 士珪禪師(1082-1146)가 禪法을 닦는 學人들의 內省과 修行에 龜鑑이 될 수 있도록 禪門의 先德祖師들이 행한 嘉言善行을 撰集한 것으로 당시에는 刊行되지 못하고 筆寫本으로만 유통된 듯하다.

(2) 重集本 『禪林寶訓』은 淳熙年間(1174-1189)에 東吳의 沙門 淨善禪師(?-?)가 大慧 宗杲禪師와 竹庵 士珪禪師의 初集本을 바탕으로 餘他的 <語錄>과 <傳記> 등을 참고하여 楊岐 方會禪師(992-1049)와 黃龍 慧南禪師(1002-1069)에서 佛照 拙庵禪師(1121-1203)와 簡堂 行機禪師(1113-1180)에 이르기까지 50餘篇을 蒐輯·補完하여 約 300篇으로 撰集한 것이다.

(3) 그러나 실제로 重集本 『禪林寶訓』은 上下 2卷으로 編次되었으며, 卷上에는 明教契嵩·圓通居訥·大覺懷璉·雲居曉舜·浮山法遠·五祖法演·白雲守端·晦堂祖心·黃龍慧南·洪英邵武·眞淨克文·湛堂文準·靈源惟清·圓悟克勤·佛鑑慧懃·佛眼清遠·高菴善悟 등 17禪師 142篇의 法語가 수록되고 卷下에는 雪堂道行·黃龍死心·草堂善清·山堂道震·妙喜宗杲·萬菴道顏·昭覺大辯·佛智端裕·水菴端一·月堂道昌·心聞曇貫·拙菴佛照·密菴咸傑·自得慧輝·或菴師體·瞎堂慧遠·簡堂行機 등 17禪師 136篇의 法語가 수록되어 도합 34禪師 278篇의 法語가 수록되어 있다.

(4) 重集本 『禪林寶訓』에 수록된 278篇의 法語 중에서 257篇의 法語의 末尾에는 引用根據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略式의 名稱이다. 동일한 引用根據가 연속될 경우에는 各篇마다 기록된 경우도 있고 先篇에서는 기록이 省略되고 末篇에만 기록된 경우도 있다.

(5) 重集本 『禪林寶訓』에는 7處에 小字의 註文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本文의 內容이 小字化되어 註文처럼 처리된 것과 地名·人名·音義 등에 관련된 註文들이다.

(6) 重集本 『禪林寶訓』은 宋朝 淳熙 9년(1182)에 淨善禪師의 主導下에 初刊되고 元朝 至元 31년(1294)에 永中禪師(?-?)의 主導下에 重刊된 뒤로 宋版과 元版의 兩大 版種으로 나누어졌으며, 宋版本은 日本으로 전래되고 元版本은 高麗로 傳來되어 우왕 4년(1378)에 忠州의 靑龍寺에서 初刊될 수 있었던 것이다.

(7)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은 了庵 行齊禪師가 어렵사리 求得한 元版本을 바탕으로 門人인 尙偉禪師(?-?)에게 板刻과 流布를 付囑함으로써 忠州 靑龍寺에서 刊行된 것이다.

(8)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板刻은 尙偉禪師와 万恢禪師(?-?)의 募緣과 優婆塞 高息機(?-?)와 優婆夷 崔省緣(?-?)의 助緣으로 造成되었으며, 當時에 造成된 木板은 忠州의 靑龍寺에 留板되었으나 忠州 靑龍寺가 어떤 연유로 廢寺될 때에 함께 없어져 지금은 失傳된 상황이다.

(9)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刊行을 위한 底本을 求得하였던 行齊禪師(1328-?)는 法名이

‘行齋’ 또는 ‘行齋’이고 法號가 了庵이며, 한때 忠州의 開天寺에 駐錫한 바도 있고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이 간행되던 우왕 4년(1378)에는 當年 51歲이었다. 또한 牧隱 李穡(1328-1396)과는 同甲으로 書信을 왕래할 정도로 가까웠으며, 幻庵 混脩禪師(1320-1392)와도 가까운 사이였으나 그보다 9세의 年下이었다.

(10)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刊行을 주도한 幻庵 混脩禪師는 高麗時代 末期의 僧侶로 俗名은 趙混脩이고 本貫은 豐壤이며 字는 無作·了圓 등이고 號는 幻庵이다. 諡號는 普覺國師이며 塔號는 定慧圓融이다. 國王의 徵召에도 쉽게 응하지 않고 俗世의 名利에 超然한 求道者였을 뿐만 아니라, 牧隱 李穡과 陶隱 李崇仁(1347-1392) 및 泰齋 柳方善(1388-1443) 등 당대의 儒學者들과도 폭넓게 交遊하였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忠州 靑龍寺의 冥晦庵에 머물면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禪林寶訓」·「護法論」·「禪宗永嘉集」 등 4종의 佛書刊行을 主導함으로써 當時는 물론 後代에 이르기까지 佛教界에 큰 業績을 남긴 高僧으로 評價되고 있다.

(11) 忠州 靑龍寺版 「禪林寶訓」의 刊行을 위한 募緣者인 尙偉禪師(?-?)와 万恢禪師(?-?) 및 助緣者인 優婆塞 高息機(?-?)와 優婆夷 崔省緣(?-?) 등에 관한 자세한 行歷은 알 수 없으나, 高息機는 奉善大夫로 典醫寺의 副正을 역임한 인물이며 崔省緣은 海州郡夫人의 爵號가 있는 人物이다.

## <참고문헌>

### [原典資料]

- 鳩摩羅什 譯, 宗密 撰, 慧定 述.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禩王 4(1378)].
- 權近 著. 「陽村先生文集」. 木版本. [發行地不明]: [發行者不明], [發行年不明]. 卷37.
- 金演錫 編. 「江陵金氏族譜」. 明川: 金光澤方, 昭和 9(1934). 卷1.
- 柳方善 著. 「泰齋先生文集」. 石版本. [發行地不明]: 柳天植, 1965. 卷1. 卷3.
- 李穡 著. 「牧隱詩藁」. 木版本. [發行地不明]: [韓山李氏宗中], [1600年代]. 卷4·17·18·31·33·35.
- 李崇仁 著. 「陶隱先生詩集」. 木版本. [發行地不明]: [發行者不明], [發行年不明]. 卷3.
- 張商英 述. 「護法論」.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禩王 5(1379)].
- 趙孟均 編. 「白川趙氏族譜」. 定州: 松潭齋, 昭和 8(1933). 卷1.
-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 京城: 朝鮮總督府, 大正 8(1919). 下冊.
- 宗杲·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版本. [忠州]: [靑龍禪寺], [禩王 4(1378)].
- 宗杲·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版本. [江原道]: [金剛山 表訓寺], [中宗 37(1542)].
- 宗杲·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版本. [順天地]: [母後山 大光寺], [中宗 20(1525)].
- 宗杲·士珪 共初集, 淨善 重集. 「禪林寶訓」. 木版本. [黃海道 黃州地]: [李順才家], [明宗 10(1555)].

玄覺 撰, 魏靜 述, 行靖 註. 『禪宗永嘉集』. 木版本. [忠州]: [靑龍寺], [禪王 7(1381)].

[單行本·論文]

강호선. “고려말 幻庵混修의 활동과 그 의미.” 『禪學』 第43號(2016. 4). 5-34.

慶時顯 編. 『淸州慶氏族譜』 卷上. 서울: 淸州慶氏大同譜所, 1983.

金約瑟 編. 『(新羅·百濟·高句麗)羅麗藝文志』. 서울: 弘文書館, 1964.

成倪 著. 『慵齋叢話』. 影印本. (『大東野乘』.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68. 所收) 卷6.

鄭明鎬. “靑龍寺 普覺國師塔碑와 石燈.” 『美術史學研究』. 第5卷 第12號(1964). 20-21.

鄭永鎬. “中原 靑龍寺址의 調査: 普覺國師 定慧圓融塔과 塔碑 石燈을 중심하여.” 『金成樺博士 華甲紀念論叢』. 서울: 歷史研究會, 1968. 449-472.

椎名宏雄. “『禪林寶訓』 諸版の系統.” 『印度學佛敎學研究』 第44卷 第1號(1988. 12). 82-87.

忠州工業專門大學工業博物館 編. 『靑龍寺址 地表調査 報告書』. 中原郡: 忠州工業專門大學工業博物館, 1990.

忠州産業大學校博物館 編. 『忠州 靑龍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忠州]: 忠州産業大學校博物館, 1996.

豐壤趙氏世譜所 編. 『豐壤趙氏世譜』. 卷1. 서울: 豐壤趙氏世譜所, 1979.

黃仁奎. “幻庵 混修의 生涯와 佛敎史的 位置.” 『慶州史學』 第18輯(1999). 101-131.

[電子情報源]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home/main.do>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east.skku.ac.kr/>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한국금석문: <http://portal.nrich.go.kr/kor/ksmUsrList.do?menuIdx=584>